



[뉴스]
유니클로 빈 자리
지센 등 토종 패션
겨울히트템 '득템'
02



Economy

코스피 1939.90 (+12.73)	코스닥 594.65 (+3.08)
금리 (미국 3년) 1.09 (0.00)	환율 (원/달러) 1211.00 (+0.20) (19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2019.8.7 잔액기준)〉 (단위:억원, %, 명)

	판매 합계	비중	개인 판매	투자자수	법인 판매	투자자수
우리은행	4,012	48.8	3,414	1,632	598	128
하나은행	3,876	47.1	3,603	1,829	273	56
국민은행	262	3.2	245	166	17	2
유안타증권	50	0.6	50	7	-	-
미래대우증권	13	0.2	8	14	5	1
NH증권	11	0.1	6	6	5	1
합계	8,224	100.0	7,326	3,654	898	188

/금융감독원

〈상품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현황(2019.8.7 잔액기준)〉 (단위:억원, %)

	판매잔액(A) (투자원금)	손실구간 진입금액(B)	예상손실액 (C)	예상손실률 (C/Bx100)
① 英/美 CMS 금리	6,958	5,973	△3,354	56.2%
② 獨 國채 10년물 금리	1,266*	1,266	△1,204	95.1%
합계	8,224	7,239	△4,558	

*판매회사별 판매 현황 : 우리은행 1,255억원 NH투자증권 11억원

DLS '깡통계좌' 속출 판매 전과정 집중검사

DLS·DLF 판매잔액 8224억
獨 國채 DLS, 95% 손실 예상
英美 CMS도 56% 손실 위기
당국, 검사국 연계 검사 추진

89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의 판매잔액은 1266억원이다. 현재 판매 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이미 진입한 상태다. 현재 금리가 만기(올해 9~11월)까지 유지된다면 예상 평균 손실률은 95.1%에 달한다. 1억원을 투자한 고객이라면 다음달 만기에 49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단 얘기다.

영국과 미국 CMS 금리와 연계한 상품의 판매잔액은 6958억원 수준이다. 85.8%인 5973억원이 손실구간으로 진입했다. 만약 만기까지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면 평균 예상손실률은 56.2%다.

◆복잡한 파생상품 판매과정 합동검사
금감원은 해당 파생결합상품에서 깡통계좌가 속출하면서 이달 중 관련 검사국이 연계해 합동검사를 추진한다. 해당 상품의 판매사(은행 등), 발행사(증권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금융회사를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됐다"며 "해당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은 물론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완전판매 관련 원활한 분쟁조정도 추진한다.

지난 16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은 총 29건이다. 검사와 병행해 분쟁조정 관련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법률 검토, 판례 및 분조례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금융 시장은 글로벌 경기하락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홍콩시위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금리, 환율, 유가 등을 기초로 한 파생결합상품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발행 및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i@metroseoul.co.kr

생보사, 운용수익 악화... 보험료 올린다

삼성·한화생명
"금리인하에 예정이율 인하 필요"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생명보험사가 저금리에 따른 수익 악화로 예정이율 인하를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보험료 운용으로 얻는 예상수익률인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19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자산 기준 생보사 순위 1, 2위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최근 상반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예정이율 인하를 공식화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지난달 기준 금리가 인하됐고 4분기에도 추가적인 인하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며 "예정이율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도 지난 8일 "최근 금리가 인하되고 있고 실제 예정이율 인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시기는 가능한

빨리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운용해 낼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말한다.

보험사는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수익자에게 주는 보험금으로 쓰고, 또 다른 일부는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보험사는 이 보험료를 활용해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가능해보고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이 예정이율이다.

예정이율은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정이율에 따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으면 보험료는 높아진다.

통상 금리가 내려가면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을 인하해 왔다. 지난 2015~2016년 기준금리가 2.0%에서 1.75%, 1.25%로 떨어졌을 때 보험사들은 각각 25bp(1bp=0.01%)씩 예정이율을 내렸다. 예정이율이 25bp 내려가면 보험료는 평균 5~6%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들이 예정이율을 인하하려는 까닭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자산운용수익률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수익률은 실적으로 직결된다. 지난달 18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서 대형 생보사를 시작으로 중소형사까지 예정이율 인하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시기는 나오지 않았다.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사실상 기정사실로 되면서 보험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공시이율까지 낮아졌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보험금은 덜 받는 상황이 된 셈이다.

앞서 생보사들은 공시이율을 일제히 0.02~0.03%포인트 낮췄다. 공시이율은 보험사가 운용자산 이익률 등을 반영해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하는 금리다. 은행의 예금금리와 같은 개념이다. /김희주 기자 hj89@



‘독도방어훈련’ 이번 주 분수령

군 당국이 이번 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독도방어훈련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는 6월에 실시할 계획했으나 한일관계를 고려해 미뤘다. 군 관계자들은 이달 20일 이후에는 훈련 시기와 참가 전력 규모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와 군 일각에서는 규모를 조금 줄여 예년 수준으로 시행하거나, 외부에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독도 모습. /연합뉴스

상장사 실적 '짙은 먹구름'... 영업이익 반토막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영향
매출액 36%, 순이익 40% ↓

올 상반기 코스피에 상장한 상장기업의 전체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코스피 상장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582조원, 33조원, 30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6%, 44.32%, 39.53% 감소한 수치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 기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679사다.

연결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출액은

98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3%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 순이익은 55조, 37조원으로 각각 37.09%, 42.95% 줄었다.

2분기 매출액은 292조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0.85%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15조), 순이익(12조원)은 각각 19.27%, 34.51% 감소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운수장비와 섬유 의복 등 8개 업종에서는 매출이 증가했고 의료정밀, 비금속광물, 전기전자 등의 9개 업종은 매출이 줄었다.

또 순이익의 경우 운수장비, 유통업 등 4개 업종의 흑자폭이 증가했고 의료정밀, 섬유 의복 등 11개 업종은 흑자폭

이 감소했다. 전기가스업과 운수창고업은 적자를 이어나갔다.

금융업의 상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5조7000억원, 12조원으로 각 9.08%, 7.18% 감소했다. 증권업, 은행, 금융지주 등의 이익이 증가한 가운데 보험업 이익이 떨어졌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반기 기업 실적 부진의 직접적인 배경은 반도체 등 수출 부진"이라며 "게다가 내수도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민간 소비가 주춤하면서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내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4면에 계속)

/김유진 기자 ujin6326@

유니클로 빈 자리... 지센 등 토종패션 겨울히트템 '득템'

유니클로 종로3가·구로점 이어
이마트월계점 다음달 15일 폐점

탐텐 8·15서츠 인기, 매출 20%↑
스파오 '웍히트' 물량 75% 늘려
지센 경량 다운 제품 강화·확대
TBJ 점퍼·베스트 출시 앞당겨



19일 서울 명동 탐텐 매장을 찾은 고객이 발열내의 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일본 제조·유통일괄형(SPA) 업체 유니클로가 '일본 불매 운동' 직격탄을 맞으면서 한 해 장사를 좌우하는 가을·겨울(F/W) 시즌 매출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토종 의류 업체들은 유니클로의 F/W 시즌 대표 아이템인 발열내의(히트텍), 경량패딩(조끼), 플리스(후리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품 물량을 확대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유니클로 이마트 월계점은 오는 9월 15일을 기점으로 폐점한다. 일본 불매 운동이 시작된 7월 이후 종로3가점, 구로점에 이은 3번째 폐점 소식이다.

유니클로 측은 예정된 일정대로 폐점 수순을 밟는 것일뿐, 불매 운동으로 인해 문을 닫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불매 운동의 영향이 없지 않을 거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유니클로는 국내에서 4년 연속 1조 원을 웃도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지

난해 국내에서만 매출 1조3732억 원, 영업이익 2344억 원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 7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발화한 일본 불매 운동이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개 카드사의 유니클로 매출은 6월 59억4000만 원에서 7월 17억8000만 원까지 내려갔다. 70.1%나 급감한 것이다.

업계는 불매 운동이 겨울까지 지속될 경우 유니클로의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을·겨울 시즌의 매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여름 시즌보다 중요하다"며 "이대로

라면 유니클로의 타격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평했다.

이렇듯 유니클로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토종 의류 업체로 눈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신성통상의 탐텐은 지난 7월 선보인 8.15 캠페인 티셔츠가 불매 운동 시기와 맞물리면서 유니클로의 대체 업체로 급부상했다. 해당 티셔츠는 준비된 물량 1만장 중 95% 이상이 조기 소진됐으며, 탐텐의 전체 매출도 약 20% 가량 늘었다.

올해 창립 73주년을 맞은 토종 속옷 업체 BYC는 심리스 제품 판매가 늘면서 2, 3차 리오더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콜피아, 보디드라이 등 여름 제품의 7월 1일~8월 18일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3% 가량 증가했다.

토종의류 업체들은 유니클로의 빈자리를 겨냥, 겨울 장사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탐텐은 겨울용 발열 내의인 '온에어' 물량을 지난해 대비 5배 많은 500만 장으로 확대했다. 또한, 경량패딩 등 겨울 아우터 물량은 전년 대비 30% 가량 확대했다.

이랜드월드의 SPA 업체 스파오도 겨울용 내의인 '웍히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75% 수준으로 늘렸다.

위비스의 지센도 지난해 경량 다운 제품을 강화한 데 이어, 올해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지센은 지난해 경량 다운 제품의 지난해 15만 장에서 올해는 30만 장까지 늘렸다.

지센은 오래 전부터 경량 다운 시장에서 토종 브랜드로서 경쟁력을 키워왔다. 지난해에는 소재 선구매, 통합구매 시스템을 통해 원자재 비수기 생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타사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경량 다운을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TBJ는 플리스 점퍼와 경량 다운 베스트의 물량을 전년 대비 각각 100%, 30% 늘렸다. TBJ 관계자는 "플리스 점퍼는

'리버서블 후드 점퍼'. /TBJ

이번주 출시 예정이고, 경량 다운 베스트는 2주 전에 출시했다. 두 제품 모두 작년보다 출시일이 빠르다"면서 "올해는 플리스 점퍼가 주력 제품이다"고 설명했다.

아웃도어 브랜드도 플리스 제품을 앞세우고 있다. 최근 '2019 코블드 독도 에디션'으로 주목 받은 바 있는 K2는 플리스 자켓 물량을 지난해 2만5000장에서 7만3000장 선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스타일은 지난해 2가지에서 올해 7가지로 늘렸다.

컬럼비아도 전년 대비 플리스 제품의 스타일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숏 플리스 재킷, 베스트 스타일 라인을 선보였지만, 올해는 이 외에 롱 플리스 재킷, 맨투맨, 후드, 터틀넥 등 다양한 스타일의 제품을 출시했다. 컬럼비아 관계자는 "간절기에 입을 수 있는 플리스 재킷의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올해 초 빠르게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확실히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oul.co.kr



국가우수장학생 '한자리에'

1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년 인문 100년 및 예술체육비전 국가우수장학생 장학중서 수여식 및 역량강화 캠프'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상장사 5곳 중 3곳 3분기 영업익 하락 전망

日 수출규제에 여행·항공사 반토막 SK하이닉스, 3분기 전망치 52% ↓

한달 새 국내 주요 상장사 3분기 영업익의 전망치가 5곳 중 3곳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한 영향이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익의 전망치는 반토막이 났고, 여행사와 항공사의 이익 전망치도 대폭 줄었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연결 기준)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221곳 중 61.9%인 137곳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방침 발표 직전인 6월 말보다 3분기 영업익의 전망치가 악화했다.

이 중 132곳은 영업익의 전망치가 줄었고 2곳은 적자 전환, 3곳은 적자 확대가 각각 예상됐다.

나머지 상장사 중 81곳(37.1%)은 영업익의 전망치가 개선(1곳은 적자 축소, 1곳은 흑자 전환)됐고 3곳은 변동이 없었다.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낸 곳은 여행, 항공업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일본을 찾는 한국 여행객이 줄고 홍콩 시위까지 격화되면서 여행사와 항공사의 영업익의 전망치도 크게 줄었다.

모두투어의 경우 3분기 영업익의 전망치가 6월 말 90억원에서 최근 28억원으로 69.0% 줄었고 하나투어 역시 158억원에서 78억원으로 50.5% 감소했다. 일본항공선 감소로 국내 LCC도 큰 타격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영업익 전



망치가 610억원에서 346억원으로 43.2% 쪼그라들었고, 티웨이항공도 19.7% (267억원→215억원) 감소했다. 규모로 보면 반도체 업종의 피해가 컸다. 지난달 4일부터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작했다 때문이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SK하이닉스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달 보름 새 3분기 영업익의 전망치가 반토막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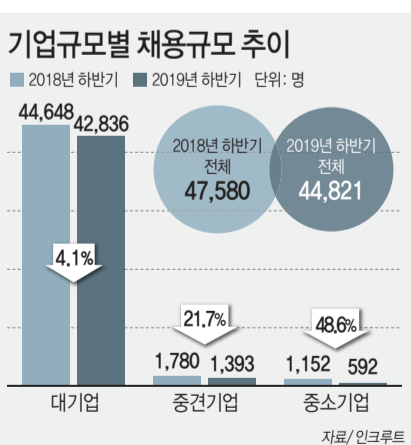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익에 대한 최근 전망치는 4327억원으로 6월 말 전망치(9104억원)보다 52.5% 줄었다. 전년동기 실적과 비교하면 무려 93.3%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치는 6월 말 7조5103억원에서 최근 6조9331억원으로 7.7% 줄었다. 지난해 3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60.6% 줄어든 수치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

채용 안하는 대기업... 고용시장 '빨간불'

상장사 699곳 하반기 채용시장 조사
대기업 전년비 4% 줄어든 4.3만명
중견 22%·중소기업은 49% 줄어



하반기 고용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기업 신입 대졸 채용 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중소기업 채용도 2년 연속 반 토막 수준으로 줄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인크루트가 상장사 699곳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의사가 있는 상장사는 66.8%였고, 채용 규모는 4만8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하반기보다 5.8% 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아직 채용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기업은 22.0%로 지난해 26.2%에서 4.2%포인트 줄었고, '채용을 하지 않겠

다'는 기업은 11.2%로 지난해(6.7%)보다 4.5% 포인트 증가했다. 결국 지난해 대비 '채용 미정 기업'이 '채용 안 함'으로 바뀌면서 전체 채용계획의 소폭 감소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은 줄고 중견·중소기업은 증가했으나, 채용 규모는 모두 감소했다.

대기업은 지난해 하반기 4만4648명의 채용을 예고했으나, 올해는 4만2836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1년 사이 4.1%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016년 이후 2년 연속 채용규모를 늘려왔으나 올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대기업이 기침했다면 중견·중소기업은 골병든 꼴이다. 하반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예정 채용규모는 각각 1393명(지난해 1780명), 592명(지난해 1152명)에 그쳐, 전년 대비 중견기업은 21.7%포인트, 중소기업은 무려 48.6%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기업 1곳당 채용하는 신입사원 수는 지난해 하반기 83.3명에서 올해 64.1명으로 1년 사이 약 20명 가량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년 연속 채용 규모가 하락한 중소기업은 지난해 하반기 1곳당 채용 인원이 평균 5.7명이었지만, 올해 1.7명으로 줄 전망이다. /한용수 기자 hys@

대기업에도 뼈아픈 '日 경제공습'... 절반이 '경영타격'

한경연 매출액 1000대 기업 설문

매출 2.8%, 영업이익 1.9% 줄어
일부기업은 적자 전환 전망도
국제 분업체계·가치사슬 붕괴
첨단소재·장비 경쟁력 높여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대기업 2곳 중 1곳이 경영에 타격받을 전망이다.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대기업들은 일본의 이번 경제 공습으로 적자 전환 가능성이 우려된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 제품 수입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 조사를 실시해 내놓은 결과 응답기업의 52%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견기업에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사례 접수에 들어가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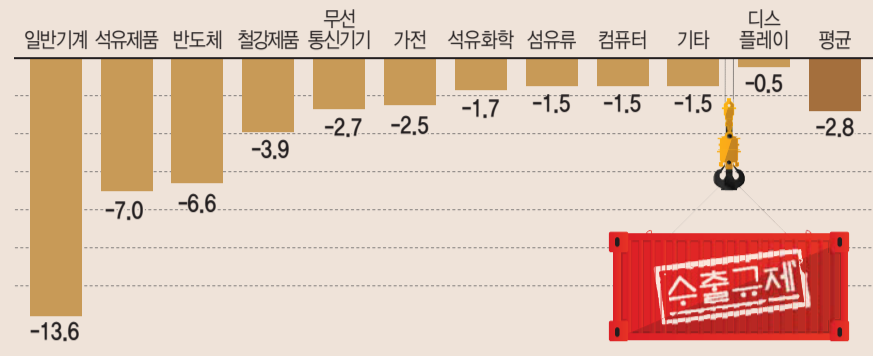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893곳 중 153곳 응답)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 수출규제 영향을 조사해 19일 내놓은 결과 51.6%가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 없음'은 48.4%였다.

특히 일반기계 -13.6%, 석유제품 -7%, 반도체 -6.6% 등 매출이 급감하고, 산업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평균 2.8%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 규제가 매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기업만 별도 집계하면 매출액은 -5.7%로 감소율이 두 배로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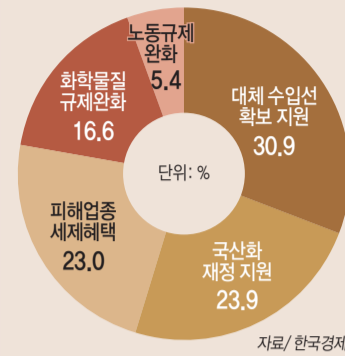
영업이익은 평균 1.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기계(-7.9%), 석유제품(-5.4%), 반도체(-5.1%), 디스플레이(-2.4%) 등에서 영업이익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 전망했다.

한경연 유환익 상무는 "작년 1000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영향 단위: %



정책지원 우선순위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율이 5.3%임을 감안하면 영업이익이 1.9% 감소할 경우 일부 기업은 적자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대체 수입선 확보'가 자체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단기 대응으로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53.7%)'가 1순위로, '대체 부품소재 물색'(15.9%), '일시적 사업축소·긴축 경영'(8.5%), '생산품목 등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8.0%) 등이 뒤를 이었다.

길게 봐도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28.8%)가 가장 많았고 '부품소재 국산화'(25.0%)도 그 다음으로 높았다.

정부 정책지원 과제 역시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30.9%)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이어 '부품소재 국산화 재정지원'(23.9%), '피해업종 세제 혜택'(23.0%), '화학물질·부품소재 규제 완화'(16.6%)였다.

한·일 경제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한·일 정부 간 외교적 타협'(40.5%)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에서 중소기업들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 및 국제공조 강화'(44.7%)를 1순위로 꼽았다.

이와 별도로 중견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중견기업연합회는 현재 일본 수출규제 피해 접수 센터를 마련, 사례 발굴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국산화를 넘어서 이를 중국에 공급하는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새로운 통상질서와 글로벌산업지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첨단소재와 장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제언했다. 산업부는 이 보고서에서 국제 통상환경이 4차산업혁명과 맞물린 GVC 체계 재편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중 한국은 수출내 GVC 생산비중(62.1%)이 세계 4위일 정도로 변화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사실상 산업정책으로 제조업 가치사슬을 북미권역에 묶어두

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내, 일본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독일은 유럽연합(EU) 지역에 권역별 가치사슬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써 지난 30년간 전세계에 걸쳐 구축돼 있던 GVC 체계가 북미, 중국, 유럽, 아세안의 4개 권역으로 빠르게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속에 중국의 부품·소재 산업 자급률 향상을 한국에 위기가 기회로 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주력 수출제품인 철강, 석유화학에서 이미 자급 생산체제를 갖췄다고 평가되며, 이제는 반도체의 자급 준비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그동안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던 한국, 일본, 대만과 중국 간의 분업 협력구조가 깨지면서 무한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與 특위의 말잔치 "대-중기 상생을"

일본 경제보복으로 국내 기업 매출·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장기적 부품·소재·장비산업 양성으로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대응 기조를 고수했다.

정세균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단순히 일본 정부의 부당 조치에 대한 반격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단기적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정 위원장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소재·부품·장비 산업 체질 개선에 대한 국민 인식은 있는데 실천은 못 따라가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품 산업 양성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다양한 기업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구성돼야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오른쪽)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특위 구성원이 (현장에서) 듣고 온 목소리는 양국 갈등이 현 상황에서 더 악화되거나 민간영역으로 확대되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불안감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아베 다소 일본 총리를 향해선 "협력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이) 먼저 용기를 내 대화 협력을 제의했고, 이제 그 화답을 들 차례"라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생활 속 아이디어
창업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생활혁신형 창업”이란?
소비 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을 겨냥하여 생활과 밀접한 아이템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말합니다.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신청안내

신청기간 2019.3.29. ~ 연내(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

지원내용 선정 후 멘토링 지원(회당 4시간, 최대 2회) 및 정책자금 최대 2천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idea.sbiz.or.kr)으로 신청

문의처 국번없이 1357

* 자세한 사항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홈페이지(idea.sbiz.or.kr)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스타트업 전문변호사 생긴다

대한변협, 스타트업 수요 증가에 새로운 '전문 분야'로 추가 지정
대형로펌도 스타트업에 러브콜
“미래 유니콘기업 선점 의지”



스타트업의 위상이 법조계에서 거세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스타트업을 새로운 '전문 분야'로 추가한 것.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스타트업을 새로운 전문 분야 변호사로 추가하고, 특정분야 전문성이 있음을 협회가 알렸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등록자격이 주어진다. 법조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하고,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분야에 따라 최근 3년 내 10~30건 이상 사건을 수임해야 한다.

새로 추가된 스타트업 분야를 포함하면 대한변협 내 전문 분야는 총 60개다. 스타트업 전문 분야는 1년 이상 내부회의 끝에 신설됐다. 스타트업 사업 영역이 다양해서 다른 전문 분야와 중복될 우려가 있었지만 일선 변호사의 높은 관심을 반영, 최종 지정됐다. 스타트업 법률 수요가 지속 증가세에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전문 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는 IT 14명, 지식재산권법 52명, 특

허 17명, 회사법 19명, 방송통신 8명, 스타트업 1명 등이다. 변호사 1인당 전문 분야를 2개까지 등록할 수 있어 스타트업 전문 분야 변호사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스타트업과 관련한 분야는 저작권 등과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법률 분야로 인정하고 대형 로펌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던 측면도 있다. 세종, 태평양, 한결 등은 지난해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판교에 사무소를 열기도 했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대형로펌이 스타트업 협회에 먼저 세미나를 제안하며 적극 나선 사례는 이례적”이라면서 “차기 유니콘이 될 스타트업을 미리 선

점해서 관리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중윤 대한변협 대변인은 “스타트업 위상이 법조계에서 커진 것은 법조계 인력이 충분해지고, 스타트업 규제 이슈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며 “변협이 전문분야로 스타트업을 만든 것은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회사 설립 단계를 비롯해 세무, 특허, 노무, 금융 등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법률 문제를 윈스탑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가 스타트업 전문변호사로 활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법학 전공 로스쿨합격률 ‘뚝’

작년 법학계열 출신 합격률 18.45%
사법고시 폐지 → 3년 만에 ‘반토막’
사회·상경계열 합격자 지속 증가세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경로가 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중 학부 법학 전공자의 합격자가 최근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대신 사회계열·상경계열 합격자는 증가했다.

19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009학년도~2019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 합격자의 출신 계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로스쿨 합격자 중 법학계열 출신은 18.45%로 로스쿨 도입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하락했다.

법학계열 출신 로스쿨 합격자는 로스쿨 도입 첫 해인 2009년 35.24%에서 2013년 55.36%로 증가한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고시가 완전 폐지되면서 최근 3년 만에 절반 수준이 됐다.

반면, 사회계열·상경계열·인문계열의 로스쿨 합격자는 2013년 이후 지속 증가했고, 2018년부터는 사회계열과 상경계열 합격자가 법학계열 합격자를 넘어섰다.

로스쿨 응시를 위해 필수로 치러야 하는 법학직성시험(LEET) 올해 응시자 역시 상경계열이 전체 응시자의 21.8%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법학계열(21.1%) 전공자를 앞섰다.

이는 로스쿨 도입 이후 서울대를 비롯해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

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들이 학부에서 법대 모집을 없애고 로스쿨 대학원 모집으로 바꾸면서 로스쿨 지원자들이 학부에서 법대 대신 경영대, 사회과학대 등에 진학한 때문이다.

특히 상위권 대학 로스쿨 합격자의 경우 서울대 등 주요대 경영대나 사회과학대 출신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출신 전공계열을 보면 상경계열이 65명, 사회계열은 29명이었고, 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 합격자 역시 상경계열, 사회계열 순으로 많았다.

법학 이외 전공자의 로스쿨 합격자 증가는 다양한 분야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취지에 부합하지만, 서울 주요대 상위권 학과 출신들이 로스쿨을 독식한다는 지적은 여전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 로스쿨 관계자는 “사법고시에서는 출신 대학에 관계 없이 시험을 잘 치면 법조인이 됐으나, 이제는 지방대 출신들의 로스쿨 입학부터 더 힘들어지게 됐다”며 “로스쿨의 수도권-지방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0학년도 로스쿨 원서접수는 9월30일~10월4일까지, 면접일은 가군은 10월28일~11월10일, 나군은 11월11일~24일까지 대학별로 실시된다. 앞서 오는 30일, 31일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로스쿨 공동 입학설명회가 열린다.

〈한용수 기자 hys@〉



코스피 상승 마감

19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1927.17) 대비 12.73포인트(0.66%) 오른 1939.90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591.57) 대비 3.08포인트(0.52%) 오른 594.65에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10.8원) 대비 0.2원 오른 1211.0원에 마감했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코스닥도 영업이익 0.57%, 순익 15.60% 하락

》 1면 '상장사 실적...'서 계속

분석대상기업 32.7% '순익 적자'

한편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12월 코스닥시장 결산법인 1153사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개별·별도기준으로 65조5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각각 0.57%, 15.60%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매출액순이익률 모두 각각 0.24%포인트, 1.06%포인트 하락했다.

정보기술(IT), 제약, 오락·문화 등 코스닥시장 대표업종은 모두 전년보다 매출액이 늘었다. IT, 제약은 순이익

〈2019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기업실적〉

단위: 억원

구분	'18년 상반기	'19년 상반기	증감	증감률(%)
매출액	5,956,686	5,815,902	-140,784	-2.36
영업이익	595,550	331,628	-263,922	-44.3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641,427	370,731	-270,696	-42.20
순이익	488,819	295,598	-193,221	-39.53
매출액영업이익률(%)	10.00	5.70	-4.30	-
매출액순이익률(%)	8.21	5.08	-3.12	-

〈자료=한국거래소〉

역시 증가한 반면 오락·문화업종 순이익은 감소했다.

IT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3.47% 증가했고 순이익은 3.57% 줄었다. 제약은 매출액(6.95%)과 순이익(117.57%) 모두 늘었으며 오락·문화는 매출액이 17.99% 증가한 반면 순이익 부분에서는 적자로 전환했다.

분석대상기업 1153사 중 776사(67.30%)는 올 상반기 순이익 흑자를 시현한 반면 377사(32.70%)가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660사(57.24%)는 전년 동기과 동일하게 흑자를 시현했고 116사(10.06%)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직장인 추석 경비 작년보다 10만원 줄어”

기혼 46만원... 평균 35만원 예상

났다.

다가오는 추석연휴 직장인들은 평균 35만원을 지출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사람이인 직장인 2404명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예상 지출비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3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45만원)와 비교해 10만원 줄어든 수준이다.

지출 금액별로 '20~30만원 미만' (21%)이 가장 많았으며, '10~20만원 미만' (16.7%), '30~40만원 미만' (15.3%), '10만원 미만' (13.8%), '40~50만원 미만' (13.4%), '50~60만원 미만' (8.8%) 등의 순이었다.

기혼 직장인은 46만원을 쓸 것으로 예상해 미혼 직장인(29만원)보다 1.5배 이상 많이 지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

직장인 10명 중 9명(89.6%)은 추석 경비 지출에 부담을 느낀다고 했고, 부담스러운 경비(복수응답)로는 '부모님 및 친지 용돈' (64.8%)이 가장 컸고, 이어 '선물 구입 비용' (28.2%), '외식, 여가 등 추가 지출 비용' (19.6%), '차레상 및 명절음식 준비 비용' (18.5%), '귀성 교통비' (15.4%)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중 60.3%는 고향을 방문할 것이라고 답했고, 예상 귀성일은 추석 연휴 시작일인 '9월12일' (42.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추석 당일(13일)' (24.1%), '11일' (23.7%), '10일 이전' (7%), '14일' (1.2%) 등이었다. 예상 귀경일은 '14일' (36.2%), '13일' (28.3%), '15일' (20.1%), '12일' (7%), '16일' (4.6%) 등이었다.

〈한용수 기자〉

건설현장 2500곳 산재 예방 '집중점검'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형건설사 시공 현장 300여곳, 중·소규모 건설 현장 2200여곳 등이다.

정부는 우선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가운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

체 현장 300여곳에 대해 불시·집중점검을 한다.

또한 중·소규모 건설 현장 3만여곳 중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천 200여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 현장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점검한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전임자와 다르겠지” 은성수 압박하는 키코공대위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키코공대위, 기자간담회 열어
불완전 판매 논란 입장표명 촉구
“분쟁조정 결과 기업 생존 달라져”

이번 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키코(KIKO),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DLF)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키코공대대책위원회가 분쟁 조정 압박에 나섰다. 키코공대위는 키코 사건 피해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최근 불거진 은행의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 불완전 판매 논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키코공대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 후보자의 철저한 인사검증과 은행의 파생결합증권 불완전 판매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키코공대위 조봉구 위원장은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대상인지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발언으로 분쟁조정에 물타기를 해버렸다”며 “키코 사건에 대한 은 후보자의 견해와 피해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청문회서 들을 수 있도록 질의서를 마련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겠다”고



키코공대대책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키코사건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키코공대대책위원회

말했다.

키코(KIKO)는 환율이 일정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외환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이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입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피해를 봤다. 당시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사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은행 6곳과 키코 계약을 맺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4개사(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를 조사하고 이달 중 분쟁조정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키코공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순 변호사는 “4개 기업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또 다른 피해기업의 생존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은 후보자부터 키코와 파생결합증권상품 등으로 많은 기업 개인들이 무너지는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키코공대위는 ‘제2의 키코사태’로 불리는 은행들의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실대 박선종 법과대학 교수는 “키코는 파생상품으로 원본초과 손실위험이 있고, 파생결합증권은 파생결합증권, 원본 100%손실위험을 가진 상품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옵션매도의 위험을 인수하게 한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파생결합증권은 만기시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3~5%까지 수익이나지만, 금리가 일정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설문조사결과 판매자격이 없는 직원이 상품을 판매하고, PB의 아이디어로 판매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며 “세부적인 감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또다시 이런 사태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 그는 “키코와 파생결합증권 상품 등을 은행이 과도한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며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으면 추후 동일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안팎에서는 은 후보자가 전향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소신이 강한 최종구 위원장과 윤석현 금감원장이 키코 분쟁조정안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비친 것과 달리는 후보자의 경우 소통을 중시해 불협화음을 정리하는데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것. 앞서 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정책의 두 핵심으로, 양 기관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융소비자 편의 증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1년2개월에 걸친 재조사후 분조위를 앞둔 막바지 단계인데다 파생결합증권 문제가 확대되며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무작정 반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고받은 업무보고 자료 및 주요 현안, 관련 참고자료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후보자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원·달러 환율 오르자 외화예금은 ‘뚝’

원·달러 환율 7월말 28.4원 상승
전월비 외화예금 7.1억만 달러 감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7월 거주자 외화예금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9년 7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696억7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7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지난 4월(632억 달러)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했다가 7월 들어 감소 전환했다.

달러화 예금(596억달러)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일반 기업이 현물환 매도 등에 나서면서 전월보다 3억달러 감소했다. 다만 일부 기업의 외화예금이 증가하면서 감소폭은 축소됐다. 원·달러 환율은 6월 말 1154.7원에서 7월 말 1183.1로 28.4원 올랐다.

엔화 예금(39억9000만달러)은 원·엔 환율 상승에 따른 기업의 현물환 매도 등으로 1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원·100엔 환율은 7월 말 1090.1원으로 6월 말(1072.4원)보다 상승했다.

유로화 예금(33억2000만달러)도 전월 대비 7000만달러 줄었다. 위안화 예금(12억7000만달러)은 8000만달러 감소했고 영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화 등 기타 통화예금(14억9000만달러)도 9000만달러 줄었다.

은행별 외화예금을 보면 국내은행(591억8000만달러)은 13억6000만달러 감소한 반면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104억9000만달러)은 6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551억2000만 달러)과 개인예금(145억5000만달러)이 각각 5억5000만달러, 1억6000만달러 감소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캠코, 콜센터용역근로자 139명 정규직 전환

사회사 설립 통해 정규직 전환 합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제5차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콜센터 용역근로자 139명에 대해 ‘사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지난해 5월 캠코와 근로자 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을 확정함에 따라 추진됐다.

캠코는 지난해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콜센터 고객 상담 및 스캔업무 용역근로자 139명의 정

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5차례, 실무협의회 9차례, 근로자 대표 간담회 등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노사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협력해 사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는 이번 콜센터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합의를 통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금융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하나카드 해외 현지에서도 휴대폰 터치 결제

해외 모바일 월렛 서비스

앞으로 비자 토큰(Visa Token) 기반의 모바일 터치 결제서비스(NFC)를 싱가포르, 런던, 호주 등 비자 컨택리스 규격을 지원하는 전 세계 NFC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나카드와 비자(Visa)는 비자 토큰 서비스가 적용된 해외 모바일 월렛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하나카드의 간편결제 앱(애플리케이션)인 ‘하나1Q페이’를 활용해 해외 현지에서 휴대폰 터치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NFC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해외에서 로밍, 와이파이(도시락), 선불 유심을 이용하는 고객도 하나1Q페이 앱만 설치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해외에서도 NFC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하다.

하나 신용·체크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앱 설치 후 ‘카드바로발급’을 통해 즉시 발급받아 이용이 가능하다.

현지 일반 가맹점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자판기, 면세점 등 NFC 결제 지원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해외 대중교통 이용 시 탑승 시마다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휴대폰과 하나1Q페이 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왼쪽)와 페트릭 윤 비자코리아 사장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비자코리아 본사에서 ‘국내 최초 Visa 토큰이 적용된 해외 모바일 월렛 서비스 출시’ 론칭 행사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자

한편 비자 토큰 서비스는 16자리로 이뤄진 카드 계정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를 ‘토큰’이라 불리는 고유 디지털 식별자로 대체해 카드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도용 범죄를 막는다. /김희주 기자

우리카드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할인 이벤트

3만원 이상 결제시 5000원 청구할인

우리카드는 올해 추석 연휴에 맞춰 열차 승차권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카드(법인, 선불카드 제외)로 열차 승차권 3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청구할인 혜택을 준다. 코레일과 SRT 각각 소지 카드 1장당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반드시 우리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이벤트에 응모해야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희주 기자

코레일 이용 고객의 경우 이달 25일까지, SRT 이용 고객은 이달 26일까지 해당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올해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는 코레일은 이달 20일과 21일 양일간 예매할 수 있다. SRT도 22일과 23일에 승차권 예매가 가능하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우리은행, 우리카드를 아껴주시는 고객들이 알뜰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열차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승차권 할인 혜택과 함께 기분 좋게 추석 연휴를 시작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딥 체인지’ 해법 찾아... 머리 맞댄 300명의 행복날개 리더

SK ‘2019 이천포럼’ 개막

임직원·초청인사 300여명 참석
ES·DT 등 주제 26개 세션 마련

첨단기술·비즈니스 방법론 활용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 등 논의



SK그룹은 3번째 이천 포럼을 열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최태원 SK 회장(오른쪽 첫번째)이 개막식에서 기조 세션을 듣고 있다. /SK

올해에는 22일까지 워커힌 호텔과 이천 SKMS 연구소를 오가며 진행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비즈니스

방법론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딥 체인지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솔루션(ES)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등을 주제로 26개 세션이 마련됐다. ES와 DT, AI가 실제 사업현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되는지를 살펴보고 개선점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SK관계자는 “ES, DT, AI 등은 재무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실천 도구들로, 이를 활용해 고객의 가치를 파악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날 개막식과 기조세션에선 최태원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계사 경영진과 임직원, 외부 초청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개막사에서 “올해 이천포럼은 SK가 고민해온 변화의 노력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실행’에 초점을 맞춰 아젠다를 선정했다”며 “이 아젠다들은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하는 방향에 있어 꼭 필요한 과제들”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기조세션에서는 미국 보스턴대 마셜 엘스타인 교수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석좌,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데이비드 달러 수석연구원 등이 강연을 펼쳤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도 포럼 첫날과 둘째날 SK와 공동 세미나 및 세션을 맡는다. 국자위는 SK와 함께 사회적 가치 측정 프로젝트를 연구중이다. LH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국내 공기업들도 참석해 양국 기업 간 협력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20일에는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이 화상을 통해 연합세션에 참여한다. 에너지 산업에 닥친 변화의 물결을 환경 관점에서 조망해본다.

이더리움 공동창립자인 조셉 루빈도 블록체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분석해주기로 했다.

셋째날에는 한반도 주변 지정학적 리

스크를 논의한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성한 교수와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 최석영 전 제네바 주재 대사 등 외교 전문가들이 총출동한다.

오후에는 AI로 고객이 원하는 가치 창출과 사업에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맥킨지 코리아 강혜진 파트너와 고순동 MS코리아 사장이 연단에 선다.

마지막으로는 SK구성원의 역량 강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SK경영경제연구소가 ‘딥체인지에 필요한 역량,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라는 아젠다로 자리를 이끌기로 했다.

최태원 회장이 마지막 클로징 스피치를 맡아 올해 이천 포럼 막을 내릴 예정이다.

이항수 SK수펙스추구협의회 PR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SK 구성원들이 글로벌 기술혁신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딥 체인지의 구체적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LS산전-한국전력연구원, 세계 최고 직류배전 기술 입증

서거차도 ‘직류 에너지 자립섬’ 탈바꿈

저압 직류배전망 구축 완료
신재생 에너지 전원 통해
에너지 효율 10% 이상 제고



LS산전은 진도군 서거차도에 세계 최대 직류 에너지 자립섬을 조성했다. /LS산전

LS산전이 전남 진도군 서거차도를 세계 최대 직류(DC) 섬으로 탈바꿈시킨다.

LS산전은 최근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및 진도군과 ‘서거차도 저압 직류배전망 구축 및 운영 실증사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LS산전과 한전 전력연구원은 서거차도에 디젤발전기 대신 200kW급 태양광과 100kW급 풍력발전, 1.5MWh급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재생에너지 전원을 구축했다. 또 직류배전망과 에너지통합운영시스템, LED 가로등과 전기카드 및 직류디지털 가전 등 직류 생태계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10% 이상 제고했다.

이번 사업은 2016년 6월 서거차도 등 도서지역 전력난을 해소하고, 직류 배전 관련 핵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직류는 교류에 비해 안정적이고 전

력 손실이 적어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는 기술이다. 앞서 변압난이도가 높아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전력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세로 자리잡는 상황이다.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공장 등 사업장을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LS산전은 이번 사업에서 글로벌 경쟁사들보다 앞서 높은 직류배전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하반기 중 빌딩에 직류 전력을 공급하는 ‘1.5MW급 직류 공급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직류 전용 스마트 전력기기 등 관련 사업 역량을 토대로 유럽과 중국, 동남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글로벌 직류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전 전력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실증 사업이 한전의 직류 배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 했다”라며 “직류 생태계 확대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S산전 관계자는 “선제적인 투자로 직류 전용 기기부터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4차산업혁명과 에너지 전환으로 확대되는 직류 시장에서 맞춤형 사업 모델을 개발해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삼성 ‘더 프레임’, 독립예술가 생태계 지원

美 민티드와 ‘혁신 협업’ 계약
21명 작 23점 소개, 판매 도와

삼성전자 ‘더 프레임’이 신진 예술가에 작품 판매를 지원한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민티드와 ‘혁신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

민티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온라인 장터 업체다. 2007년 창업해 클라우드 소싱으로 문구를 판매하면서 이름을 알렸으며, 최근 예술 작품과 인테리어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삼성전자는 협업을 통해 더 프레임 아트스토어에 독립예술가 21명의 작품 23점을 소개하기로 했다. 개별작품은 19.99달러에 판매하고, 한달에 4.99달러를 내면 모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클라우드 소싱도 도입된다. 예술가가 작품을 제출하면 민티드 사이트에



삼성전자가 ‘CES 2019’에서 공개한 ‘더 프레임’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 그림·사진 등의 예술 작품을 ‘아트 모드’를 통해 보여줘 일상 공간을 갤러리처럼 만들어 주는 제품이다. /삼성전자

서 소비자 투표를 진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회사측 심사를 거쳐 판매 작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민티드는 더 프레임과 협업을 통해 독립예술가 생태계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용 기자

SKT, 전국 돌며 ‘블루 노트’ 체험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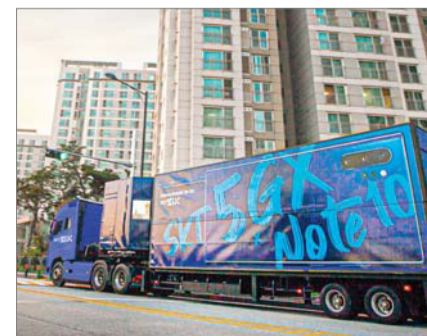
SKT 노트10 체험 트레일러 출정식
점프 VR 등 5GX 서비스 홍보나서

SK텔레콤이 전국을 돌며 ‘블루 노트’ 알리기에 나선다.

SK텔레콤은 20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SKT 노트10 체험 트레일러’ 출정식을 열고 전국 순회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트레일러는 5GX 클러스터가 있는 광주와 대전, 부산과 대구 및 인천 등 주요 도시를 돌며 갤럭시 노트10 블루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노트10 ‘에어액션’을 활용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플로 기능과 ‘점프 VR’, ‘점프 AR’, ‘롤 멀리



SK텔레콤은 갤럭시 노트10 체험 트레일러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운영한다. /SK텔레콤

뷰’ 등 SKT만의 5GX 서비스 및 이벤트를 소개한다.

한편 SK텔레콤은 전국 T월드 매장에서 갤럭시 노트10 체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LG U+ ‘U+프로야구’서 MLB 생중계

MBC 스포츠플러스와 제휴
韓메이저리거 출전 중심 중계

LG유플러스가 미국 메이저리거(MLB) 경기도 실시간 중계한다.

LG유플러스는 MBC 스포츠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20일부터 ‘U+ 프로야구’에서 MLB 중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 19일 밝혔다.

출전하는 경기를 중심으로 하루에 최대 3개 경기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MLB관에서는 한국 메이저리거가 출전하는 경기 일정과 대진표를 소개하고, 지난 경기 하이라이트도 볼 수 있게 했다.

LG유플러스는 MLB관 오픈을 기념해 경품 이벤트도 마련했다. 다음달 20일까지 MLB를 시청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아이패



LG유플러스는 U+ 프로야구를 통해 미국 메이저리거 실시간 중계를 시작한다. /LG유플러스

드와 여행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김재용 기자

2019년 하반기 첨단기술 지능 테스트 SK하이닉스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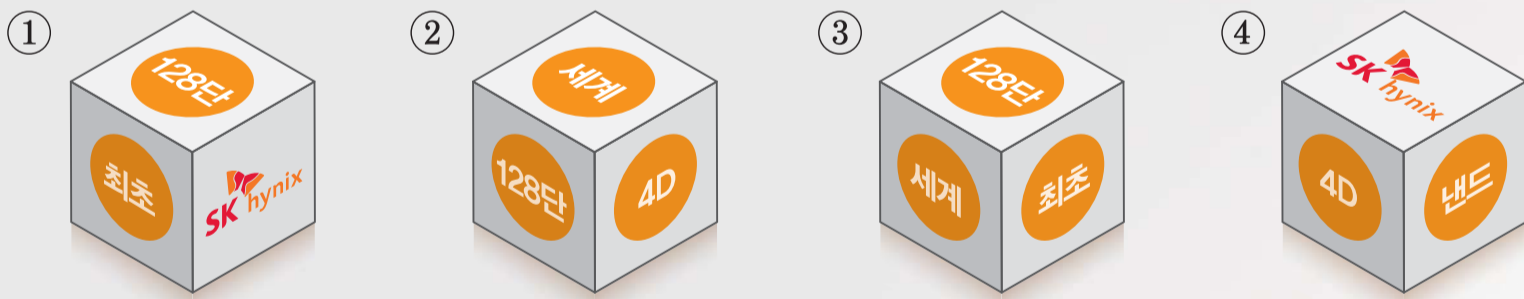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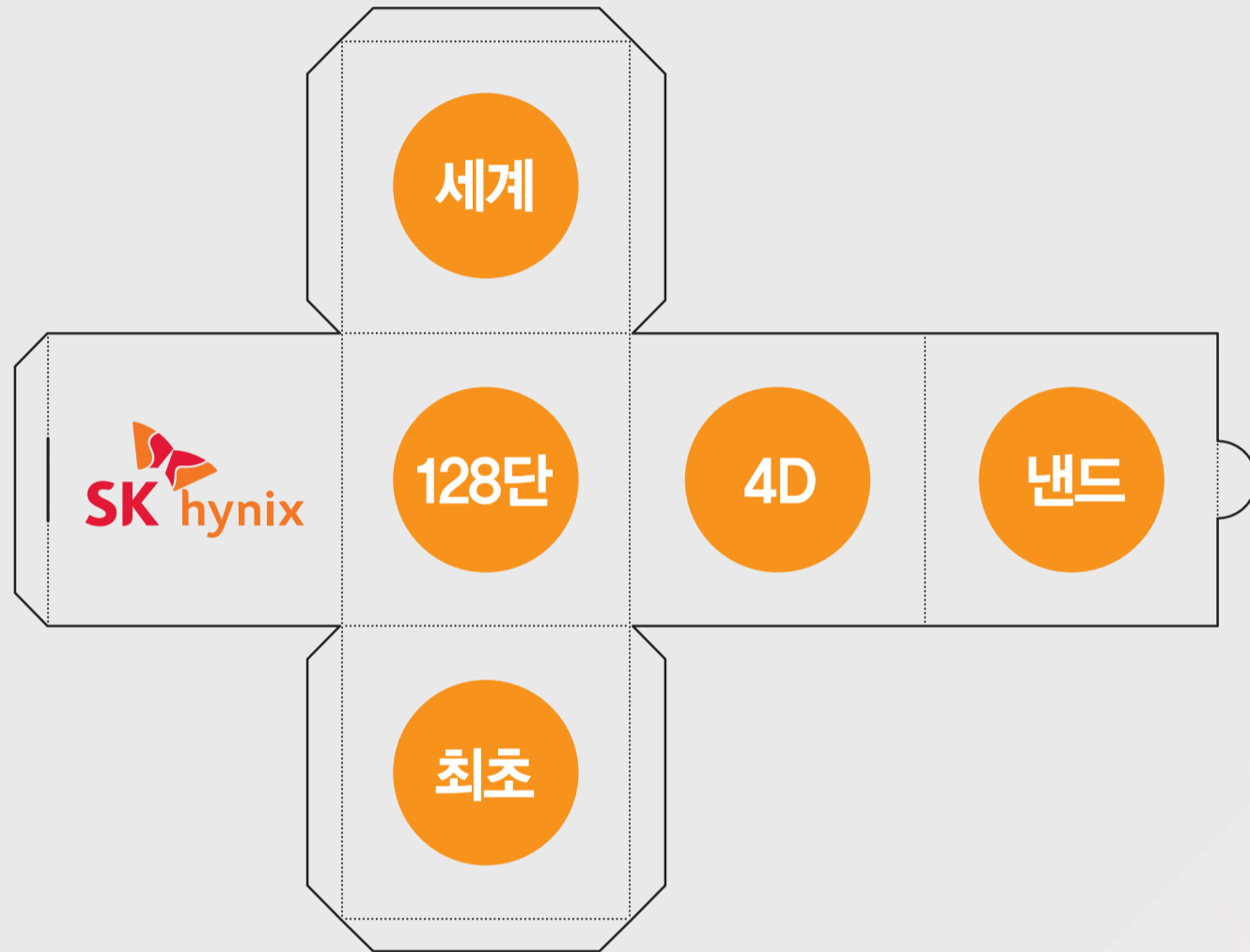
제2교시

난이도 : 中

신기술 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28단 1Tb(테라비트) 4D 낸드플래시를 개발하고 업계 최초로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 96단 4D 낸드플래시 개발 이후 8개월 만의 성과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4D 영화 관람권과 큐브가 선물로 지급되었는데, 이 큐브의 전개도를 접으면 어떤 모양이 나타날까요?



이 큐브는 SK하이닉스 4D 128층 1Tb 낸드플래시 상용화를 기념하여 제작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 4D 128층 1Tb 낸드플래시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4D 128층 1Tb 낸드플래시입니다.



© SK hynix

삼성중, 7500억 규모 LNG 원유운반선 10척 수주

-163°C 액화가스가 연료... 황산 99% 줄인 '친환경 선박'

올 수주목표 78억달러의 54% 달성
2022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지역 선사로부터 LNG(액화천연가스) 연료추진 원유 운반선 10척을 총 7513억원에 수주했다고 1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들 선박은 2022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로 삼성중공업은 국내 조선 업계 중 처음으로 올해 수주 목표의 절반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총 29척, 42억달러를 수주해 목표 78억달러의 54%를 달성했다. 수주 선종도 LNG선 11척, 원유운반선 14척, 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 특수선 1척, FPSO 1기 등 다양한 선종으로 확대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올해 첫 인도한 동급 LNG 연료추진 원유운반선.

/삼성중공업

이번에 수주한 선박에는 독자 개발한 LNG 연료공급시스템 'S-Fugas'가 적용된다. 'S-Fugas'는 영하 163도의 액화 LNG를 기화시켜 선박의 메인 엔진

LNG 연료추진선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이다. 추진 연료로 LNG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디젤유 사용에 비해 황산화물 99%, 질소산화물 85%, 이산화탄소 25%를 줄일 수 있다.

'S-Fugas'는 영하 163도의 액화 LNG를 기화시켜 선박의 메인 엔진이나 발전기 등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LNG 연료추진선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알려졌다.

LNG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충족하면서 고유황유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클락슨과 DNV-G L, Lloyd 선급 자료를 종합해 2025년에는 세계 신조발주 선박시장의 60.3% (1085억달러)를 LNG연료추진선 시장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중공업은 친환경을 지향하는 시장 흐름에 따라 2012년부터 다양한 형태 및 재질의 LNG 연료탱크와 엔진(ME-

GI, X-DF)를 적용해 LNG 연료추진선 분야에서 차별화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총 20척의 LNG 연료추진선(LNG 운반선 제외)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지난 6월 LNG 연료추진 초대형유조선(VLCC) 개발에 성공해 로이드 선급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달에는 차세대 LNG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실증 설비 구축에 나서는 등 LNG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국산화를 통한 원가절감으로 수주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 올려 친환경 선박시장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기아차 '2020년형 스포티지' 출시

운전석 자동쾌적 제어 등 신규 적용

기아자동차가 외관 디자인과 고객 선호 편의사양을 대거 적용한 2020년형 스포티지를 출시했다.

기아차는 19일 디자인 고급감 강화, 고객 선호 편의사양 신규·확대해 상품성을 더욱 강화한 '2020년형 스포티지(사진)'를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2020년형 스포티지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전면, 측면, 후면 가시쉬 등에 유광 크롬을 적용해 크롬 포인트의 고급감을 높였다. 또 전 좌석에 시트 벨트 리마인더(SBR, Seat Belt Reminder)를 기본 적용하고, 운전석 자동쾌적 제어(공조, 통풍, 열선시트, 히트드 스티어링휠 연동 제어)를 신규 적용했다.

주력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고객 최선호 사양인 1열 파워/통풍시트, 2열 히트드 시트, 하이패스 시스템(ET

CS) 등을 기본 적용했다.

더불어 디젤 엔트리 트림인 트렌디 트림에서도 주요 편의사양 패키지인 내비게이션,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패키지 등을 옵션으로 고를 수 있도록 해 고객선택권을 대폭 넓혔다.

2020년형 스포티지는 고객 선호 편의사양을 확대 적용했음에도 ▲가솔린 모델 프레스티지 2342만원 시그니처 2670만원 ▲1.6디젤 모델 트렌디 2381만원, 프레스티지 2588만원, 시그니처 2916만원 ▲2.0디젤 모델 트렌디 2430만원, 프레스티지 2637만원, 시그니처 2965만원 등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됐다.

특히 가솔린 모델은 엔트리 트림에서부터 주요 편의사양을 기본 적용하면서도 최상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한편 기아차는 2020년형 스포티지 출시와 함께 웹 예능 형식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콘텐츠는 9월 중 기아자동차 유튜브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2020년형 스포티지는 준중형 SUV 고객이 원하는 성능, 공간, 편의사양을 모두 갖춘 최고의 SUV"라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2020년형 출시를 통해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제네시스 '민트 콘셉트' 전 세계에 뽐냈다

美 '몬터레이 카 위크 2019' 참가
럭셔리 마켓에서 인지도 높여

제네시스 '민트 콘셉트'가 세계적인 자동차 전시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14일부터 18일까지(현지시각) 5일간 미국 캘리포니아 몬터레이에서 열린 지상 최대의 럭셔리 카 축제 '몬터레이 카 위크 2019'에서 제네시스의 콘셉트카 '민트 콘셉트'를 전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몬터레이 카 위크는 매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약 5일간 열리는 자동차 전시회로 세계적인 럭셔리카와 클래식카가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된다.

몬터레이 카 위크는 클래식카와 항공기 등이 전시되는 '백홀 모터웍스 리바이벌'로 그 서막을 열며 최고의 클래식카를 뽐내는 경연 대회인 '페블비치 콩쿠르드 엘레강스'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제네시스는 몬터레이 카 위크 대표 행사인 페블비치 콩쿠르드 엘레강스에 민트 콘셉트를 선보이며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럭셔리 마켓을 대상으로 고급 브랜드로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인지도를 높여나간



'몬터레이 카 위크 2019' 기간 중 최고의 클래식카를 뽐내는 경연 대회인 '페블비치 콩쿠르드 엘레강스' 현장에 전시된 제네시스 브랜드의 콘셉트카 '민트 콘셉트'.



는 방침이다.

이번에 전시된 민트 콘셉트는 지난 3월 열린 뉴욕 모터쇼에서 공개된 전기차 기반의 프리미엄 씨티카 콘셉트카로, 도시에서 구현되는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기능성은 물론, 주행성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씨티카를 지향해 도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최적화된 차량이다.

콘셉트카 차명인 민트는 '멋지고 세련된', '완벽한 상태' 등을 표현하는 뜻으로 '작지만 스타일리시하고 도시 안에서의 이동에 최적화된 씨티카'라는 '민트 콘셉트'의 의미를 표현했다.

민트 콘셉트는 제네시스 고유의 디자인 감성을 보다 진화시켜 녹여내어 뻗어나가는 듯한 앞면과 뒷면의 쿼드 램프는 민트 콘셉트만의 존재감을 부각

시키고, 특유의 크레스트 그릴은 전기차 배터리의 냉각 기능을 위해 약간의 개방감을 부여한 조형미를 선사하고 있다.

실내 공간은 빈 공간을 품는 한국의 전통적 디자인과 현대적인 유럽의 가구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세심하게 디자인되었다. 가벼운 느낌의 직물, 코냑 가죽을 통해 아늑한 느낌을 강조하고, 문설주가 없는 차창을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 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몬터레이 카 위크는 글로벌 럭셔리 마켓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행사 중 하나"라며 "전 세계 명차들이 모이는 이곳에서 '민트 콘셉트'를 선보일 기회를 얻어 매우 영광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전기·전자 시스템 안전성 입증

獨 인증기관 테스트프레소 규격 인증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 검증 솔루션 안전성을 입증했다.

LG전자는 최근 독일 인증기관 TUV SUD에 테스트프레소에 대한 규격 인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인증 내용은 전기·전자 시스템 기능 안전 국제표준인 'IEC61508'과 자동차 기능안전 관련한 'ISO 26262' 등이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능 및 성능

지 검증받은 셈이다.

테스트프레소는 가전과 부품, 로봇 등을 개발하고 품질을 검증하는 솔루션이다. 2004년부터 지속적인 필드테스트를 거쳐 계열사와 타기업에도 도입했다.

LG전자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춰 테스트프레소가 인증 절차를 모두 통과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기능안전에 부합하는 검증 솔루션이 많지 않은만큼 희소성도 기대했다.

/김재용 기자 juk@

볼스원 연말까지 뽕카에 차량 관리용품 지원

볼스원이 연말까지 무료 카셰어링 서비스 기업 '뽕카'에 차량 관리 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볼스원의 차량 관리 용품을 지원 받는 뽕카는 광고를 입힌 차량을 공유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카셰어링 서비스, '뽕카Go'를 운영하는 모빌리티 광고 플랫폼 기업이다.

자동차 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온 볼스원은 뽕카Go 서비스 차량 관리에 필요한 제품들을 지원함으로

써 무료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을 돕는 것은 물론, 차량 관리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볼스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뽕카Go 차량 100대를 대상으로 차내 유입되는 초미세먼지 차단에 특화된 '초미세 집진 에어컨·히터 필터', 빗물을 튕겨내는 발수 및 코팅효과로 깨끗한 시야 확보를 책임지는 '레인OK



볼스원 '뽕카'에 차량 관리 용품 지원.

발수코팅 에탄올 워셔', 프리미엄 차량용 방향제 '그라스 디퓨저(105ml)'와 '볼스원 조강력겔 크롬샤인 거치대'를 지원한다.

/양성운 기자

해외로 눈돌리는 공제회... '교직원' 등 운용사 선정돌입

한국교직원·과학기술인 공제회 해외 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총 4000억원 운용 최대 6개기관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의 자금도 해외로 향하고 있다. 국내보다 높은 수익을 내면서도 더 안정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기관투자자의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해외 주식 및 채권 재간접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를 내고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해외 재간접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건 처음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3일 공문을 내고, 국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제안서를 받는다. 이후 총 2단계(정량, 정성평가) 절차를 거쳐 내달 6일 2000억원을 운용할 2개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해외주식 재간접 위탁운용사 선정개요〉

구분	주요내용
투자금액	· 2,000억원
선정기관 수	· 위탁운용사 2개사, 예비 위탁운용사 1개사 ※ 선정된 위탁운용사에 각각 1,000억원씩 투자할 예정이며 예비 위탁운용사는 본회의 신규투자 계획에 따라 향후 투자 예정
선정 방식	· 정량(1차), 정성(2차)평가를 기초로 한 일괄방식 선정
지원 자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의 자격을 갖춘 운용사
주요 역할	· 집합투자기구 설정(또는 일임계약)을 통한 투자기구(Vehicle)마련 및 해외주식 운용사(또는 공모펀드)선정관리 업무

과학기술인공제회 역시 지난 16일 공문을 내고, 오는 2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등을 거쳐 역시 총 2000억원을 운용할 최대 4개 기관을 뽑는다.

운용방식은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국내 자산운용사가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해외 자산운용사를 선정해 해외 주식 또는 공모펀드, 채권펀드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제회가 직접 운용하기에는 해외 주식세와 개설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좀 더 유연

하고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내 자산운용사를 뽑기 위해서다.

그동안에도 교직원공제회는 해외 투자의 경우 100% 위탁 운용해 왔다. 다만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과 차이점은 국내 자산운용사가 아닌 해외 자산운용사가 현지에서 운용하는 투자 프로세스를 가져오겠다는 의미다. 보다 적극적인 해외투자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총 운용규모가 36조원인데 이 중 2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

긴 힘들다"면서도 "재간접 위탁운용사를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해외투자를 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제회의 해외투자 비중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해외주식에 9260억원을 투자하고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투자금은 1조 2723억원으로 37.4% 늘었다.

전체 운용 자금의 56.6%를 투자하고 있는 대체투자 부문에서는 9조4026억원의 자금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 대체투자 규모는 7조5037억원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역시 해외투자 비중을 매년 늘려오고 있다. 이미 5조원이 넘는 운용자금 중 61%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위탁운용사가 선정되면 새로 유입되는 자금을 투입해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 관계자는 "국내 투자비중을 특별히 줄이는 건 아니고,

새로 유입되는 자금은 해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위탁 운용을 통해 해외 투자 정보도 빠르고, 조직도 더 큰 해외 자산운용사가 자금을 잘 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자금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수익률도 훨씬 좋고, 오히려 더 안정적 이어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지난 16일까지 국내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및 채권을 매수한 규모는 603억달러(약 73조 293억원)로 작년 한 해 수준(600억달러)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관은 고객의 돈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수익률 추구가 중요하다"면서 "국내에만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없는 환경에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리테일 강자’ 키움증권, 증시 급락에 2분기 실적부진

2분기 연결순이익 555억, 65% ↓
"증시 하락세... 3분기 부진 예상"

증시 하락 여파로 브로커리지(주식중개) 의존도가 큰 키움증권의 2분기 실적이 부진했다. IB(투자은행)부문 등에서 호실적을 내놓은 타 증권사들과 대조된다.

키움증권이 브로커리지 리테일(소매) 의존도가 높은 만큼 증시 급락 여파가 3분기에도 이어지면 또 한 번의 부진한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2분기 연결순이익은 555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4.8%

감소했다. 주식운영본부 수익이 적자로 돌아선 동시에 PI(자기자본투자)부문과 자회사(키움인베스트먼트·키움PE·투자조합 및 펀드)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수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주식운용본부의 수익이 적자 전환했다"며 "연결로 반영되는 투자조합 및 펀드의 수익 역시 감소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브로커리지, 리테일 의존도가 높은 키움증권은 타 경쟁사보다 주식시장의 등락과 연동관계가 크다. 실제 주식시장이 부진했던 지난해 4분기에는 적자를 시현했고 주식시장이 회복된 올해 1분기에는 어닝스프라이즈를 기록, 다

시 증시 하락이 이어진 이번 분기에는 부진한 실적을 내렸다. 7월 이후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가자 또 한 번의 실적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주식시장이 코스닥 중심으로 크게 하락했고 키움증권의 높은 이익 변동성을 감안할 때 3분기 실적 또한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I 부문에서는 290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PI 부문은 지난해 4분기 547억원 적자, 올해 1분기 763억원 흑자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분야다.

최근 증권사의 실적은 PI 투자 성과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PI 투자 전략이 시장 변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부진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핵심이익(수수료+이자)은 아직 견고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키움증권은 지난 2분기 주식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 분기보다 9.0% 증가한 1819억원의 수수료와 이자를 벌어들였다. 개인 시장점유율은 29.1%로 상승했고 IB 수수료는 72.1% 증가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증시 변동성 확대시 PI 수익성 약화가 예상되나 주식 및 메타저니 외 투자 확대로 변동성은 감소하고 있다"며 "리테일 브로커리지 중심 영업에서 종합증권사로 탈피하기 위한 체질 개선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기대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증권 다이제스트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내일 '100세시대 아카데미'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공개형 생애자산관리 교육프로그램인 '100세시대 아카데미' 8월 강좌를 오는 21일 NH투자증권 본사 아트홀에서 진행한다. 100세시대연구소는 올해부터 '명사 특강' 코너를 신설해 연 2회 진행하고 있다. 8월에는 두 번째 명사 특강으로 100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백년을 살아보니' 강좌를 실시한다. 매월 개최하는 '100세시대 아카데미'는 강의 일자별 사전 참가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NH투자증권 영업점 담당 서비스직원 또는 모바일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손엄지 기자

미세먼지 걱정 없앤 공기청정 아파트

포스코건설은 이달 중 경기도 광주 오폐 고산1지구 택지개발지구내 C1블록에서 아파트 59~84㎡ 1396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 ▲59㎡ 48가구 ▲76㎡ 479가구 ▲84㎡ 869가구 등이다. '오폐 더샵 센트럴포레'는 미세먼지 청정아파트로 세대 내에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첨단 시스템이 도입되며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조성한다.

포스코건설은 각 동 출입구에 에어 샤워 부스가 설치돼 미세먼지를 차단할 예정이다. 에어샤워 노즐을 통해 바람과 집진으로 이물질들을 제거해주는 시스템으로 귀가시 옷이나 몸에 달라붙은 이물질과 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세대 내에는 청정환기 시스템이 무상 설계된다.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4중 필터 장치로 99.9%까지 차단



오폐 더샵 센트럴포레.

하고, 초미세먼지의 10분의 1 크기인 0.3㎛ 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도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입주민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마련된다.

사업지에서 약 1.5km 거리에 오는

'오폐 더샵 센트럴포레' 이달중 분양
포스코건설, 경기 광주에 1396가구

2022년 일부(서울~안성 구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 오폐IC를 통할 수 있다. 또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이용하면 3번국도, 제2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수월하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삼평동) 삼한하이팩스 A동 109호에 사전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1577-0065) /이규성 기자 peace@

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 '가치투자분석' 과정 개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가치투자분석' 집합교육과정을 10월 7일부터 개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식 운용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가치투자분석' 과정은 거시경제 및 업종별 기업분석 방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조사·분석의 기초 이론을 익히고 기업재무 및 기업가치평가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의 현장감 있는 강의로 업종별 최근 특징 및 투자전략, 주식시장의 트렌드 분석과 기업평가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개별 기업에 대한 비교분석능력 등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다. 교육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9일간 35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손엄지 기자



키움증권 부동산펀드 가입 이벤트

키움증권은 홈플러스 3개 점포(인천 인하점·대전 문화점·전주 완산점)에 투자하는 '이시스 코어 리테일 부동산 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시스 코어 리테일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 펀드 국내 1위(부동산 펀드 설정액 기준) 이시스 자산에서 운용하며 홈플러스 3개 점포를 통해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추후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한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구조이다. 공모 예정금액은 약 1180억원이며 최소 청약금액은 100만원이다. /김유진 기자

날개 꺾인 항공업계... FSC·LCC 나란히 '실적 추락'

〈대형항공사〉

〈저비용항공사〉

대한항공 986억 손실 등 실적 악화
 H 규제로 항공화물 수송량도 급감
 일본 보이콧·中 운항신청 중지
 성수기인 3분기도 '먹구름' 전망



대한항공 보잉787-9.

국내 항공업계를 둘러싼 실적 악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양대산맥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는 물론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저비용항공사(LCC)도 올해 2·4분기 일제히 적자를 기록하면서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환율 상승의 영향이 컸다. 여기에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촉발된 반일 분위기로 여행객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항공사들의 하반기 실적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의 2분기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대한항공

은 986억원, 아시아나항공은 1240억원, 제주항공은 274억원, 진에어는 266억원, 티웨이항공은 258억원, 에어부산은 219억원의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일본과 관계 악화는 항공 화물 수송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1~7월 인천공항을 통해

수송된 화물량은 총 156만49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2% 감소했다. 국내 항공 화물은 대부분 인천공항을 통해 수송된다. 대한항공은 올 들어 화물수송량이 10.5% 감소했고, 아시아나항공은 8.5% 줄었다. 두 항공사가 국내 항공화물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물량이 감소하

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0월부터 국내선 화물서비스 일부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문제는 올 하반기에도 실적 악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2분기 적자는 환율 상승과 고유가에 따른 부담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지만, 하반기에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되면서 항공 수요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항공업계는 3분기 성수기를 맞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시작된 반일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여행객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여행객들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등 보이콧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LCC 업체들의 실적 악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불매 운동 영향으로 일본 노선 운항과 감편에 나섰던 LCC들은 중국 노선을 대체지로 삼고 노선 재편에 나섰지만 중

국 항공당국이 운항 신청을 중지한다고 기습 통보했다.

여기에 인기 여행지 중 한 곳인 홍콩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4월부터 홍콩 시민들이 벌여온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들불처럼 확산되면서 국내 여행객들의 홍콩 여행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일본과 중국, 동남아를 중심으로 운항을 이어온 LCC 들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실적 쇼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2분기 원화 약세와 항공유 가격 인상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국내 항공업계가 3분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상치 못한 악재가 계속 발생하면서 올 하반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운항 효율성을 높이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2분기 원화 약세와 항공유 가격 인상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국내 항공업계가 3분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상치 못한 악재가 계속 발생하면서 올 하반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운항 효율성을 높이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용인서 버린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 '경쟁률 96대 1'

고용 창출, ICT 발전 기대감에
 지자체·민간, 유치 경쟁 치열

네이버가 새롭게 지을 제2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뜨겁다.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136곳이 데이터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의향서를 제출했고, 이들 중 96곳이 최종 제안서를 제출해 9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96개의 제안 부지에 대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우선협상부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 및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연내 최종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부지 수는 미정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서 네이버는 강원도 춘천 데이터센터 '각'에 이은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용인 공세동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017년 세웠다. 투자금액은 5400억원이었고 완공은 2023년이 목표였다.

하지만 공기질 악화, 유해세균 발생, 전자파 발생 등 피해를 우려한 공세동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타협점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네이버

을 찾지 못한 계획이 무산됐다. 그 후 네이버는 지난달 1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지 제안 공개 접수를 시작했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와 저장장치 등 전산설비를 구동하는 공간으로,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심장'으로 비유되는 핵심 시설이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반 인프라로,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

이 전 세계에 걸쳐 보유하고 있다.

공세동의 거센 반대와 달리 네이버의 공개 접수에서는 136곳이 몰리며 유치 경쟁으로 거센 모습이다. 지자체는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교통 편의성, 낮은 기온 등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자체가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일단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다. 추가로 관련 IT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자체의 세수 증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네이버 춘천 데이터센터를 통해 170여 명의 인력이 창출됐다. 제2 데이터센터는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규모도 약 2배 크게 지어지는 만큼 인력 창출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이 뜨거운 만큼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선정과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2nDC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진 중이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의 번째 데이터센터는 첨단산업의 근간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해 데이터 주권을 지켜가겠다는 네이버의 약속"이라며 "부지선정을 시작으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간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애플 '한국 진출 20년' 일자리 32.5만개 창출

애플이 국내 진출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고용 인원을 밝혔다.

애플은 19일 애플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고용 창출 페이지를 개설해 6월 30일 기준 한국 지사에 직접 고용된 직원 수가 500명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32만5000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애플 직원 수는 그동안 업계 추정으로 알려졌을 뿐, 정확한 수치가 알려진 적은 없다. 애플은 "20여년 전(1998년) 단 2명의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디자이너, 제작 전문가, 리테일 직원, 고객 서비스 담당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0년 이후 직원 증가율은 1500%다. 특히 작년 국내에 처음으로 문을 연 애플스토어의 개장 준비를 위해 2017년 직원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이와 함께 국내에서 창출한 일자리 수가 32만5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내 부품사 등 협력업체를 통해 12만5000여 명, 앱스토어 생태계를 통해 20만명이다. 이는 컨설팅 업체인 애널리시스그룹이 2018년 애플이 한국에서 상품 및 서비스에 지출한 투자총액 정보를 토대로,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 수를 산출한 것.

구체적인 국내 협력업체 수와 사례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애플은 국내 협력업체 200여 개사와 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 6만명, 도매 및 소매·차량 수리 2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 활동 1만명, 행정 및 지원 서비스 활동 8000명 등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팟빵, 美 최대 팟캐스트 원더리와 맞손... '닥터데스' 韓 상륙

내용 재구성해 한국어로 론칭
 주요 콘텐츠 '오디오 드라마'

오디오 콘텐츠 포털 팟빵이 미국 최대 팟캐스트 콘텐츠 제작사인 원더리(Wonderly)의 콘텐츠를 한국에서 추가로 선보인다.

팟빵은 올해 미국에서 가장 인기를 얻은 원더리의 '닥터데스(Dr. Death)'를 첫 작품으로 선정하고 한국어로 공식 론칭했다고 19일 밝혔다.

원더리의 첫 한국 론칭 작품인 '닥터데스'는 미국에서 벌어졌던 실화를 바

탕으로 '닥터데스'라고 불리워진 던치 박사가 33명의 환자에게 죽음의 수술을 자행했던 사건을 실감나게 재구성한 작품이다.

원더리는 2016년 20세기폭스의 후원으로 미국에서 설립한 회사로 3년만에 '닥터데스(Dr. Death)'를 비롯해 80여 개의 인기 팟캐스트를 전세계 청취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미국 최대의 전문 팟캐스트 제작 기업이다.

팟빵은 원더리와 공동으로 올해 초부터 한국 청취자에게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원더리(Wonderly)는 초고

속 모바일 인프라와 수준 높은 콘텐츠 소비 방식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 팟캐스트 시장이 팟캐스트 시장을 가속화할 전력적 거점중 한곳으로 평가했다.

기존의 한국 팟캐스트 콘텐츠가 주로 진행자들에 의한 토크형 콘텐츠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면 원더리의 인기 팟캐스트는 오디오 드라마 형식을 비롯해 현장감 있는 콘텐츠가 많아 한국 청취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더리의 디클랜머(Declan Moor

e) 해외총괄 이사는 "원더리는 한국의 최대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과 제휴를 통해 한국의 청취자들에게 원더리의 팟캐스트를 들려줄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팟빵은 크리에이터의 창의적인 제작 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팟빵의 플랫폼은 매우 혁신적으로 청취자들에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팟빵 임석영 이사는 "닥터데스를 시작으로 원더리는 미국에서 인기를 거둔 팟캐스트를 한국 청취자들에게 적합한 팟캐스트로 재 구성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된다"며 "원더리와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Wenger®
Swiss Made
Watches

A Swiss Company
 since 1893



3 Year Warranty
 Seaforce Chrono
 01.0643.111



WENGER®
 wenger.co.kr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이론 넘어 사륜車 달린다... 메쉬코리아, 당일배송 스타트

음식배달서 패션 등 상품배송 확대 전국 200개 부릉스테이션 거점 오전 10시 주문면 오후 7시 배송



라스트마일 서비스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물류 스타트업 메쉬코리아가 이륜차 운송을 넘어 사륜차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메쉬코리아는 사륜차 사업을 통해 기존 음식 배달 외에 패션·액세서리 등 상품 배송으로 시장을 확대한다.

메쉬코리아는 가정간편식(HMR) 전문 기업 프레시지의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프레시지는 '밀키트(Meal-kit)' 기업으로,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아볼 수 있는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쉬코리아는

부릉 사륜차 배송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오전 10시까지 주문된 프레스지 상품을 오후 7시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메쉬코리아의 사륜차 사업은 택배와 퀵서비스를 합친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방식으로 운영된다. '택배보

다 빠르게, 퀵보다 저렴하게'가 모토다. 허브 앤 스포크는 각각의 지점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중심 거점(허브)에 집중시킨 후, 각각의 지점(스포크)으로 다시 분류해 이동하는 방식이다.

메쉬코리아는 택배와 퀵의 장점을 합쳐 고객사의 창고로부터 지역의 거점(허브·간선)까지는 택배 방식의 사륜차로 물건을 이동하고, 지역 거점부터 최종고객(스포크·라스트마일)까지는 퀵 서비스 방식의 이륜차로 이동한다. 거점까지의 이동에 사용되는 사륜차는 1톤 트럭이다.

거점은 현재 기존 이륜차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부릉스테이션을 사용한다. 부릉스테이션은 전국에 200여 개, 서울에 50여개가 있다. 부릉스테이션을 거점으로 기존에 구축된 촘촘한

이륜차망을 이용해 더욱 빠른 배송을 한다는 것이 메쉬코리아의 설명이다.

최근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등을 시작한 업체들이 늘고, 더욱더 빠른 배송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기존 택배는 대규모의 물류센터, 차량 등을 이용한 배송이기 때문에 운영 효율성은 높을 수 있지만 빠른 배송을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반면, 퀵은 매우 빠르나 건당 배송비가 1만~2만원 수준으로 비싸 사실상 일반적인 서비스로 운영하기에는 불가능했다. 메쉬코리아는 사륜차 사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메쉬코리아는 지난 4월부터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에서 사륜차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7월부터 서울 전역으로서 비스를 확대했다.

메쉬코리아 관계사는 "물량은 4월 서

비스 시작 이후 매일 물량이 2배씩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고객사는 회, 해산물, 육류 등 빠른 배송에 대한 니즈가 강한 업체들 위주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패션, 액세서리, 화장품 등 다양한 고객사와 논의 중이다.

메쉬코리아 이종현 사륜차사업추진 단장은 "이륜차 배송비는 기존 음식배달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건당 수수료로 지급되는 구조"라며 "해당 상품들은 기존 음식배달을 수행 유휴 시간대인 점심과 저녁 사이, 저녁 식사 시간 이후에 배달하는 구조라서 이륜차 기사분들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으면서도 효율적인 비용이 구성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ericbae1683@metroseoul.co.kr

웅진코웨이, 대용량 공기청정기 인기

올 1~7월 판매량 전년비 150% 증가

웅진코웨이의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인기가 있다.

웅진코웨이는 올해 1~7월 대용량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50%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에 민감해짐에 따라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무실·병원·학원·유치원·학교·식당·카페 등에서 공기청정기 수요가 증가하며 용량이 큰 공기청정기 인기도 덩달아 치솟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웅진코웨이 B2G·B2B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맞춤 관리 서비스이다. 웅진코웨이는 B2G·B2B 고객을 관리하는 별도의 코디(서비스 전문가) 조직을 운영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학교 공기청정기 관리 서비스 주기는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맞춰 관리서비스 질을 높였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는 공공기관 공기청정기 입찰을 전담하는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금년 B2G 공기청정기 입찰 수주 실적도 전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대용량 공기청정기 인기제품은 '트리



충남 유구에 위치한 웅진코웨이 유구공장 공기청정기 생산 라인에서 직원들이 콤팩트와 파워 공기청정기를 점검하고 있다. /웅진코웨이

플과워 공기청정기 AP-2318D'와 '콤팩트와 파워 공기청정기 AP-3018B'다.

트리플과워 공기청정기는 23평형 제품으로 제품 좌·우·하단으로 공기를 흡입하는 3면 흡입 방식을 적용해 공기 중은 물론 바닥 공간의 먼지까지 빠르고 강력하게 청정한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콤팩트와 파워 공기청정기는 30평형 제품으로 4단계 필터가 전면과 후면에 상, 하로 각각 총 4세트가 배치되어 넓은 공간의 공기도 강력하게 청정한다. 와이드순환·집중순환·터보순환 모드를 갖춰 공간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케어가 가능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김승호 기자

코스트코서 '휴테크 안마의자 로드쇼'

휴테크산업, 부산·세종점서 2주간

휴테크산업은 19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2주간 코스트코 부산·세종점에서 '휴테크 안마의자 로드쇼'를 진행한다.

이번 로드쇼는 HBL5(체형 자동인식·마사지 부위 레벨링 시스템) 타킷 마사지 기술이 탑재된 제품인 안마의자 카이 LS7와 S7, Q9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휴테크에서 독자 개발한 HBL5 시스템은 인체 마사지 가능 범위를 세밀하게 구분해 보다 정밀한 마사지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특히 LS7은 총 140단까지 마사지 가능 부위를 구분할 수 있는 HBL5 140 기술이 탑재돼 있다.

이번 로드쇼에서는 폴딩형 디자인의



'듀얼웨이브' 발마사지기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듀얼웨이브는 2개의 발 롤러와 1개의 진동 롤러로 발 전체를 마사지한다. 버튼형 조절 방식으로 간편하게 작동이 가능하다. /배한님 기자

자이글, 美서 완판... 6만달러 '2차 수출'

자이글 핸섬, 구이·볶음·조림 등 요리형태 따라 팬 쉽게바뀌 '인기'

자이글의 적외선 조리기가 미국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자이글은 휴앤쇼핑과 함께 '자이글 핸섬' (사진)을 미국에 2차로 수출한다고 19일 밝혔다. 휴앤쇼핑이 미국 수출을 위한 밴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 금액은 1차 수출 규모와 비슷한 6만480달러다.

자이글 핸섬은 자이글의 대표 그릴로 원형 구이팬, 사각 볶음팬, 솔뚜껑 양면팬을 모두 갖춘 웰빙 가전 용품이다. 구이, 볶음, 조림 등 취향 및 요리 형태에 따라 쉽게 팬을 바꿀 수 있어 주부들에게 인기가 있다.

계다가 자이글 핸섬은 타사 일반 그



릴과 달리 실내에서 문닫고 조리해도 유해가스 방출이 없는 친환경 그릴로도 유명하다. 적외선 램프를 통해 상부 열 전달 방식의 양방향 복사열 조리가 가능해 산소를 태우지 않고 조리가 가능하다. 그로 인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음식 냄새, 연기, 기름 튀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자이글 관계자는 "지난해 수출한 초

도 물품이 미국 시장에서 모두 완판돼 이번 수출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유럽 등 해외 시장을 계속 공략해 수익 극대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자이글은 2011년 일본에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이후 해외 시장을 꾸준히 넓혀왔다. 일본의 경우 대형 양판점 곳곳에서 자이글 제품을 만날 수 있다. 다만 최근 경제 회복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당장 눈에 띄는 영향은 없지만 보다 다양한 판매처 확보를 위해 현재 여러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이글은 지난해 론칭한 뷰티헬씨 전문 브랜드 'ZWC' 광고모델로 최근 배우 연서를 내세워 산소뷰티다바 이스 사업을 더욱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시몬스 '수퍼싱글·웨딩 프로모션'

매트리스 등 최대 20% 할인

시몬스는 '수퍼싱글 프로모션'을 9월 8일까지 연장해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수퍼싱글 프로모션은 전국 시몬스 직영 플래그십 스토어, 대리점, 백화점 매장 등 전국 공식 매장에서 수퍼싱글(S) 사이즈 매트리스 구매 시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몬스 침대는 '수퍼싱글 프로모션' 이외에도 본격적인 웨딩 시즌을 맞아 전국 시몬스 매장에서 제품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웨딩 프로모션'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침대 프레임 전 제품은 매트리스와 함께 구매 시 10% 할인되며 프레임 신제품의 경우 10% 추가 할인이 더해져 총 2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케노샤'의 침구류, 퍼니처 등도 10% 할인한다. 특정 매트리스 구매 시 5~10%의 스페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다양한 사은품도 풍성하게 지급한다. 더블 사이즈 이상 매트리스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7만원 상당의 커버를 증정한다. 또한 350만원 이상 구매 시 선착순 500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케노샤 호텔 침구 세트를 증정한다. 모든 사은품은 한정 수량으로 선착순 제공된다.

시몬스 침대는 전국 공식 대리점 및 직영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36개월 장기 카드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인 '시몬스페이'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12·24·36개월 중에서 선택해 무이자 부담 없이 프리미엄 침대를 구매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허영희 부이사장 선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임 부이사장으로 허영희 전 강원중소벤처기업청장(사진)을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허 신임 부이사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업무 경력만 23년에 달하는 실무형 임원으로 지난 1996년 출범한 중소기업청 전자정보표준과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실, 중기청 지식서비스창업과, 기업금융과, 운영지원과를 두루 거친 후 지난해 8월부터 강원중소벤처기업청장을 맡아왔다.

허 부이사장은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관련한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그동안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업무파악에 힘쓰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달아오른 조국정국... '국회 동의없는' 17번째 장관되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與 “정치공세 점입가경” 반발 野 “비리 종합선물세트” 비난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두고 '자질 공방'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치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특히 차기 대권 후보로도 꼽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차후 정국 기선을 좌우할 척도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소신 밝히던 조국, 본인 논란은 일축... 野 “청문회 버티기 편법”

자유한국당은 19일에도 조 후보자의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가 납부' 논란 등을 거론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 데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대책회의를 실시하며 후보자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번 TF는 조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부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의 의원과 법률지원단 미디어특별위원회 등 당내 기구까지 동원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혹 중 일부는 적극 해명했지만, 재산 형성 과정과 남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 등에 대해선 "실제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밝히겠다는 게 조 후보자 설명이다.

하지만 야권은 조 후보자 태도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관행'을 지적하고 나섰다. 행정부 견제를 위해 지난 2000년 6월 마련한 '인사청문회법'은 공직 후보자가 자질·적합성·업무 능력·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 질의를 통해 검증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이 없어도 공직자 임명이 가능하다.

현 정부 들어 국회 동의안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6명에 달한다. 현안 전반에 대한 소신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

S)에 올리던 조 후보자가 본인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청문회 당일까지 버티려는 편법이라는 게 야권 지적이다.

◆“비리세트·법꾸라지” 비난에 검찰 고발까지... 여야, 조국 정국 돌입

야권은 보수·진보진영 모두 조 후보자의 자질을 의심하며 지명철회와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야 할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조 후보자를 겨냥해 "비리 종합선물세트·무한리필 후보자"라며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었다는데, 이제 와서 적법을 운운하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대책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를 위장매매·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조 후보자에 대해 "국론통합을 역행한 코드인사(측근내정)"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평화당에선 문정선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법꾸라지 조국은 법무부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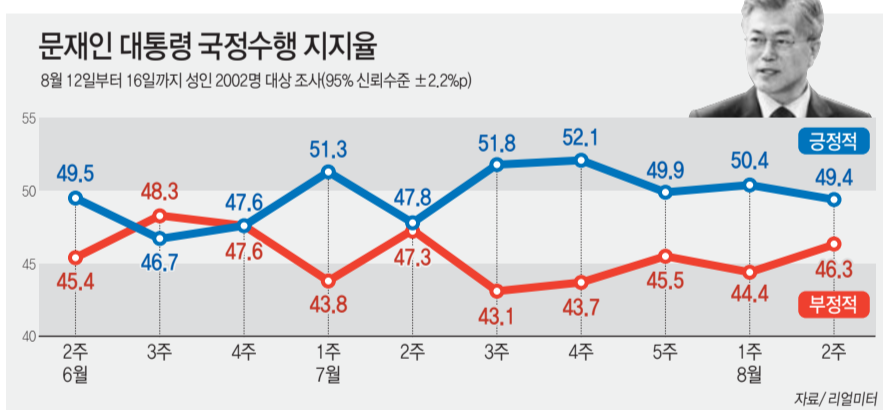
◆與 “정치공세” 반발... 사생결단 총돌 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발탁된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복심 중 하나로 꼽힌다. 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면서 야권은 향후 정국을 위해 조 후보자에게 화력을 쏟고 있다.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제도 개혁을 주도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오르지 못하면 사법개혁도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여권으로서도 적폐청산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사법개혁을 완수하려면 조 후보자 방패막이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21대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공방은 더욱 치열하다. 청문회 이후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심사를 거치면 곧바로 선거국면에 돌입한다. 내년 정국을 주도할 첫 관문이 이번 청문회로 꼽히면서 여야는 더욱 날을 세우고 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文 지지율 49.4%... 北 대남 막말에 하락

지지율 1.0%p ↓ 부정평가 1.9%p ↑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의 대남(對南) 막말 논란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4일·1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8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 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2%p·응답률 4.1%)'를 조사해 19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0%p 하락한 49.4%, 부정평가는 1.9%p 상승한 46.3%다.

리얼미터는 8월 2주차 초반 때 발생한 북한의 대남 막말로 인해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하락한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 한미연합훈련 첫날인 지난 11일 북한은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 또는 해명하지 않으면 남북 접촉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고, 청와대를 향해서는 "요란스럽게 짚어대는 게"라고 비하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이 전달(지난 15일) 발표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놓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문 대통령 경축사를 향해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이 한창"이라며 "남조선 당국자 말대로라면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 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고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5%p 상승한 40.6%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 역시 전주 대비 0.7p 상승한 29.4%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우승준 기자 dn1114@

文대통령 “평화경제, 韓 미래 핵심이자 기회”

북한의 광복절 경축사 비난 중지부 수보회의서 평화경제 중요성 부각

북한이 대남기구를 활용해 '평화경제'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신랄하게 비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광복절 경축사 논쟁의 중지부를 찍는 모습을 연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평화경제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시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수보회의 때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경제는 우리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다. (이 과제는)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제는) 남북간의 지렛대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사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수보회의 때 '광복절 경축사'와 '평화경제', '역지사지' 등을 거론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그중 북한이 신랄하게 비난한 문 대통령의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연관 깊은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실제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언급하며) 한마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남조선 당국자가 최근 북조선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는니,

북조선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이전 상황과 달라졌다는니 하면서 광복절과는 인연이 없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조평통은 계속해서 "남조선 당국자 말대로라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 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 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며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 중인 때에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라고 했다.

조평통은 "(이러한 시점에서) 버젓이 북남사이의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게 의문스러운 뿐"이라며 "(문 대통령은)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못박기도 했다.

/우승준 기자

2주 남은 대입 수시모집 지원 전략

전년 합격선 중요... 논술전형, '수능최저' 적용 파악을

학생부교과전형, 매년 합격선 비슷
면접 유형·일정 미리 확인해야
작년에 비해 수험자 감소 변수

올해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 성적 외에 학생부 비교과, 논술, 수능최저학력기준 등 아직 접수가 확정되지 않은 요소를 기준으로 지원 대학과 학과를 정해야 하는 만큼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형별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 100%로 선발하므로 고31학기까지의 학생부 성적이 정해진 만큼 변수가 크지 않아 매년 합격선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므로 학생부교과전형부터 합격 가능한 대학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다.

학생부교과전형 준비의 첫 단계는 목표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신 성적이 관심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와 비슷하다면 합격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 대학이 합격자 성적을 평균점수 기준으로 발표하므로 대학이 발표한 수치보다 실제 커트라인은 좀 더 낮게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뉴스1

형성된다. 다만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 합격자들의 수준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합격자 평균과 커트라인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모집 인원의 증감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모집 인원이 줄어들면 경쟁률과 합격선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 수도권 대학 중 학생부교과전형 모집인원이 증가한 대학은 한양대 예리카(51명), 세종대(45명), 중앙대(29명), 성신여대(17명), 한국외대(15명) 등이고, 감소한 대학은 경기대(-106명), 단국대 죽전캠퍼스(-100명), 홍익대(-92명), 명지대(-87명), 숙명여대(-55명) 등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높을수록 경쟁률과 내신 합격선은 다소 내려간다. 지난해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됐거나 폐지된 경우 경쟁률과 내신 합격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 올해는 지난 6월 모의평가 응시자를 기준으로 전체 수험생이 전년보다 8.5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시모집 학생부 합격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난해 입시 결과를 맹신하기보다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과 학과를 찾아야 한다.

또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 지원 대학은 수능 위주 정시모집 지원 가능 대학보다 상위 대학이나 학과를 지원하는 게 좋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와 면접을 종합평가해 선발하는 경우 전년도 합격자 내신 평균이나 면접 점수 등을 내 성적과 비교하는 게 쉽지 않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가능 대학 선택은 자신이 다니는 고교 선배들의 합격 사례와 비교해봐야 한다. 또 학생부교과전형 지원 학과보다 상위로 지원하는 게 좋다.

면접을 치른다면 면접 유형과 면접 일정을 고려해 지원 대학을 정해야 한다. 자신이 어떤 유형의 면접에 강점이 있는지와 관심 대학의 면접 유형을 미리 확인하는 게 필수다. 특히 면접 일정이 겹치는 경우 비교우위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

논술전형의 경우 대부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데, 자신이 충족할 수 있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하는 대학 위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 실질경쟁률과 합격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0학년도 논술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서울시립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다. 건국대는 지난해까지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2020학년도에는 적용하는 반면, 연세대는 수능 최저를 폐지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높을수록 이를 충족하는 학생의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과 합격선이 하락하게 된다.

자신에게 유리한 논술 유형과 고사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

메가스터디교육남윤곤입시전략연구소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논술 유형을 찾아내려면 우선 논술은 어느 정도 답안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므로 자신이 어떠한 영역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예컨대 인문계 학생 중 수학에 강점이 있다면 인문사회 및 수리 문항 유형, 영어에 강점이 있다면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는 유형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시 논술고사 일정은 크게 수능은 크게 수능 이전과 수능 이후로 나뉜다.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은 가톨릭대(의예제외), 경기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연세대, 홍익대 등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내가 만든 앱 전세계로” 국내외 고교생 한자리

‘제9회 이아이콘 세계대회’

교육부는 국내외 고교생들이 팀을 이뤄 교육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제9회 이아이콘(e-ICON) 세계대회’를 18일~24일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해외 12개국 고교생 42명과 교사 19명, 우리나라 고교생 42명과 교사 21명이 참가해 국제연합(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앱을 개발한다.

대회는 국내 유일의 다국적 팀 소프

트웨어대회로 국내외 해외 학생이 각각 2명씩 1개 팀을 구성하고 각 팀에 국내외 교사가 2명씩 참여한다.

부산대, 가천대, 단국대 관련 분야 전공 학생 21명이 기술 멘토로 참가해 대회 기간 중 학생들을 공동 지도한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증강현실(AR)을 활용한 과학 학습 앱을 개발한 한국에니메이션과와 미국 와이파후 칼라니고 공동 팀이 1등을 수상했다.

출품작은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등에 무료로 배포되고 전 세계 학교 현장에서 자유롭게 활용된다. /한용수 기자

국민대-삼성SDS, 전자서명 해킹 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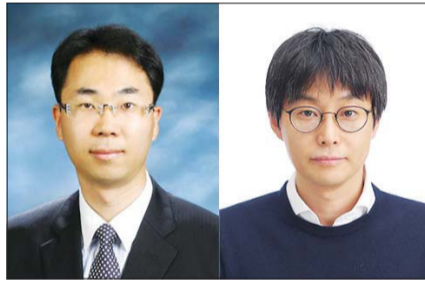
CHES 발표, TCHES 게재
“다양한 방어기법 확보할 것”

국민대학교와 삼성SDS 연구진이 전자서명 해킹을 차단하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

국민대학교는 정보보호연구소와 한동국 교수 연구팀이 삼성SDS 보안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부채널 공격’을 주제로 한 논문을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CHES(Cryptographic Hardware and Embedded Systems)에 발표하고, TCHES(Transactions of CHES) 저널에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CHES는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암호 공학 국제학회다.

부채널 공격이란 전자여권, 자동차



한동국 국민대 교수 조지훈 삼성SDS 팀장

스마트키와 같은 전자기기에서 암호가 동작하는 동안의 전력량과 전자파 등을 분석해 암호를 해독하는 물리적 기법을 말한다.

미국 국립기술표준원(NIST)은 2016년부터 양자 컴퓨팅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암호를 뜻하는 양자내성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의 표준화 공모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대 한동국 교수 연구팀은 NIS

T의 공모 후보에 오른 일부 암호 체계가 부채널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밝히고 이에 따른 안전한 알고리즘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삼성SDS 보안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이뤄낸 성과로 눈길을 끈다. 삼성SDS는 지난해 기존 부채널 공격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확보한 바 있으며, 올해는 양자내성암호에 대한 부채널 공격 기법과 대응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국민대 한동국 교수와 삼성SDS 조지훈 보안연구팀장은 “5G시대에는 IoT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부채널 공격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국민대와 삼성SDS의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부채널 공격에 대한 다양한 방어기법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성신여대
천안삼거리휴게소
독립미술관 개관

성신여대 미술대학 조소과가 ‘공공 미술 열린 미술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참여한 ‘경부고속도로 천안삼거리휴게소 독립미술관’이 지난 14일 공식 개관했다고 19일 밝혔다.

천안삼거리휴게소 독립미술관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예술작품으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취지로 조성됐으며, 성신여대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대전MBC, 보림로지스틱스 천안삼거리휴게소 등 4개 기관이 참여했다.

/한용수 기자

세종대
전국 고등학생 대상
대학전공 체험 행사

세종대학교는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세종대학교 전공 탐색의 날’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공 탐색의 날은 고등학생이 대학의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진로 탐색 및 진학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물리천문학과, 컴퓨터공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법학부 등 총 22개 전공이 참여했다.

/한용수 기자

“학문 경계 허문다”... KAIST 융합기초학부 내년부터 운영

학생 스스로 선택한 학점으로 학위

KAIST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 취득한 학점에 따라 학위를 주는 과정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

KAIST는 지난 2017년 신성철 총장 취임 후 추진해 온 융합기초학부 설치에 대해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을 받아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융합기초학부 전공 학생

은 올해 11월 학부 새내기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융합기초학부는 기존 학과(전공)가 세부 전공을 정해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을 벗어나, 학생이 원하는 진로나 관심 분야에 따라 개인맞춤형으로 전공 분야를 구성해 능동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수강해 136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교과과정에 따라

공학사, 이학사, 융합공학사, 융합이학사 등 4개 학위 중 하나를 받는다. 다만 기존 방식대로 전공과 학과를 정한 뒤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융합기초학부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커리큘럼은 융합기초 교과목 6개, 중점분야별 전문 교과목 8개, AI 교육을 바탕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등 8개 중점분야 30여개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한용수 기자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아시아나항공 홍보대사에 프로골퍼 이다연
 아시아나항공은 19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이다연 선수를 공식 홍보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1년간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는 국제선 전 노선의 비즈니스클래스 항공권을 무상으로 제공해 이다연 선수의 해외 대회 출전과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김영현 여객본부장(왼쪽)과 이다연 선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롯데하이마트, 과학 꿈나무 위한 과학콘서트 개최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17일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전국 초등학교 과학 꿈나무와 학부모 총 300여 명을 초청해 'Hi(하이) 과학콘서트'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과학에 관심이 있는 아동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를 선착순 공개 모집했으며 무료로 진행됐다. /롯데하이마트



GS25, 하남시와 손잡고 '폭염쉼터' 운영
 편의점 GS25는 경기도 하남시와 손잡고 폭염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폭염쉼터는 오는 9월 19일까지 하남시에 위치한 점포 14곳에서 운영된다. GS25는 시청과 협의해 매장 앞에 홍보 배너를 부착하고, 시민들의 탈수를 막을 수 있는 음료 키트를 제공한다. /GS25



아주복지재단, 청소년 서울체험 프로그램 진행
 아주그룹은 비영리기관인 아주복지재단이 지난 14~15일 이틀간 서울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주 신나는 여행'을 서울아 부탁해~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 복지증진 역할을 하는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중학생 32명을 모집했고, 1박2일 일정으로 아주 좋은 꿈터, 고려대학교, N서울타워 등을 방문했다. /아주그룹

관광공, 제10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제10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오는 9월 18일까지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지닌 관광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선정해 그들에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매년 1회씩 개최됐으나 올해 초 열렸던 공모전 당시 예상보다 높았던 창업 수요를 충족하고 관광산

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가로 개최된다. 공모전은 크게 ▲예비관광벤처 ▲관광벤처 ▲재도전부문을으로 진행된다. 올해 9년째를 맞이하는 이 공모전은 그간 600여 개의 혁신적 관광기업을 발굴해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창출했고, 약 17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관광산업의 외연 확장에 기여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아베OUT'에 대한 고찰



이상현의 칼럼

유난히 일본에만 감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솔직히 말해서 그이유를 역사적 사실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혹자들은 일본에 대한 피해 의식에서 출발한다고도 한다. 틀린 말도 아니다. 해방 이후 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 지금의 한국으로 발전해온 것은 국가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의 우수성보다는 국민들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실천이었다. 요즘 자주 거론되는 단어가 '토착왜구'다. 사실 지금의 기득권 세력 중 상당수가 소위 일제강점기부터 친일파로 불리는 세력들을 부인할 수 없다. 일부 언론들 또한 언어적 유희를 통해 현 정부나 국민들을 우롱하며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소수의 일부 단체의장이라는 사람들이

연일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일본 국민이라고 느낄 정도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망발들로 대다수의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있다. 과연 그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되묻고 싶다. 당연히 표현의 자율성은 인정한다. 또한 자유와 자율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자유는 윤리적, 법적,합리적 규범내에서 실행되어야 진정한 자유라 할 수 있다. 최근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정부도 장관도, 대통령도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을 거론한 적도 없다. 일제강점기때나 IMF시절, 자연스럽게 국민운동으로 시작된 '물산장려운동'이나 '금모으기운동'과 같이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소비성향에 애국과 반일을 포함한 내적표현이 실현되는 것이다. 소위 지도계층에 있는 높으신분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 유치원 아이들도 현실적 파악과 불매운동에 왜 동참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진대 소위 토착왜구들과 동일한 것거리와 발언을 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참 좋은 기회다. 오히려 이번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려는 아베정권의 몰지각과 몰염치적 사고를 뜨겁게 되갚아 주어야 한다. 일본에 종속된 기술과 제품에 대해 자생력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국가와 업계, 그리고 학계와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금심과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기술적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오히려 자립기술 기반으로 체질변화의 기회인 지금이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아베! 정말 잘했다. 우리의 정서와 역량에 불을 짚어준 것에 대해 통렬한 후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국내에 잔존해 있었던 토착왜구의 정의와대상을 재규정해서 더 이상 그들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뿌리째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위대하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신한생명, 포항 지진피해 이웃돕기 후원

이재민들 위해 1000만원 전달

신한생명은 두 차례 지진으로 경제·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 지역주민을 위해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진피해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이재민은 아직도 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임시구호소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은 "그동안 포항시 지역주민들께서 신한생명을 많이 아끼고 성원해 주신 덕에 포항지점이 대형점포인 PREMIER 지점으로 승격했다"며 "지역주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방법을 찾던 중 지진 피해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있다는 소



성대규 신한생명 대표(가운데)가 포항시 지역주민을 돕기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이강덕 포항시장(오른쪽)에게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생명

식을 전해 듣고 후원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생명은 각종 재난재해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돕기 위해 신한은

행, 신한카드, 오렌지라이프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등과 힘을 합쳐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부산은행 지연인재 양성 위한 체험 프로그램 실시

BNK부산은행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4일에 걸쳐 부산은행 본점과 연수원에서 '꿈을 담아내는 기업(꿈담기)'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교육청을 통해 선발된 금융권 진로를 희망하는 지역 고등학생 22명이다. 기존 이론 중심의 진로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금융인이 되어 은행 창구업무 체험, 예·적금 등 금융상품 기획, 외환업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금융권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인사

- ◆홍국증권(신규) ◇ △위성창 법인영업본부 이사
- ◆법무부(임용) ◇4급 △국가승무과장 김기수
- ◆외교부 ◇국장 △외교전략기획관 이준호 ◇과·팀장 △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팀장 조재홍 △태태1과장 이민경 △남미과장 홍순복 △북미유럽경제외교과장 서용주(서울=연합뉴스)
- ◆위키리크스한국 △정경부장(부국장) 이병욱

부음

- ▲이설우씨 별세, 이상윤(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현숙·현영씨 부친상, 김신영씨 시부상, 박성은(포항대동고 교사)·박만병(오타와한인교회 목사)씨 병부상 = 19일 오후 12시 25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1일 오전. 053-258-4444
- ▲정옥례씨 별세, 이형규(쿠팡출판사 대표)·형

- 옥·형태·형영씨 모친상, 이 신(번호사)·이은비(번호사)씨 조모상 = 17일 오전 4시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1일 오전 11시. 02-2227-7580
- ▲송옥희씨 별세, 박중건(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씨 부인상, 박기준(SK하이닉스 팀장)·소연(KT 강북본부 과장)씨 모친상 = 19일 오전 2시19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02-3010-2262
- ▲전순옥씨 별세, 노정호(전 CJ제일제당 상무·전 동아원 대표)·선호·태호(KETI 선임연구위원)씨 모친상, 유희금·송미영(경기연구원 수석 선임연구위원)씨 시모상, 류태용(스타키보청기 산본센터 대표)씨 장모상 = 19일 0시4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1일 오전 11시45분. 02-2258-5940
- ▲최봉복씨 별세, 강대식(대전 중구 태평2동장)씨 장모상 = 18일 오후 8시 10분, 대전 서구 월평동 대전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042-523-6444

“더 빠르게 더 편하게”... 이커머스 ‘추석 프로모션’ 분주

예년보다 추석이 앞당겨지면서 유통 업계는 추석 선물세트 판매로 분주하다. 백화점과 마트는 추석 선물세트 구색을 다양하게 마련해 고객의 선택지를 넓혔으며, 이에 질세라 이커머스 역시 추석 선물세트 프로모션을 진행해 명절 특수를 누릴 계획이다.

◆빠를수록 더 싸게!

이커머스 대표주자 쿠팡은 ‘2019 추석’ 기획전을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해 추석과 관련된 모든 상품을 한곳에 모아 선보인다. ‘미리사면 더 큰 혜택’ 프로모션을 포함해 ‘선물관’, ‘준비관’, ‘여행관’, ‘로켓프레시’ 등에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비교하고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은 추석 기간 중에도 로켓배송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날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특히 ‘미리사면 더 큰 혜택’ 프로모션에서 다양한 상품을 풍성한 할인 혜택으로 제공한다.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에서 고객이 선물세트 50만원, 30만원 이상 구매 시 각각 15%, 10% 즉시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 주방용품과 주방가전 등 주방 필수품을 10만원, 6만원, 3만 5000원 이상 구매 시 각각 1만원, 5000원, 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터파크도 ‘추석 선물의 끝판왕’ 프로모션을 9월 6일까지 2주 동안 진행한다. 명절 프로모션에 걸맞게 담당 MD들이 명절 시즌 판매 데이터와 구매 후



/쿠팡·인터파크·마켓컬리



기 등을 바탕으로 엄선한 명절 인기 상품을 선보인다.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격대별 선물관’과 ‘제품별 선물관’을 마련했다. 가격대별 선물관은 1~2만원 대 알뜰 선물, 3~5만원대 실속 선물, 6~9만원대 감사 선물 그리고 10만원 이상

- 쿠팡** ‘미리 사면 더 큰 혜택’
- 인터파크** ‘추석 선물의 끝판왕’
- 11번가·옥션** ‘홍삼’ 주력 선물세트
- 마켓컬리** 프리미엄 세트 50% 할인

품격 선물 등으로 구분하여 원하는 가격대의 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카테고리별 선물관도 누구나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가공식품, 신선식품, 제수용품 등으로 분류했다.

또한 명절 기간 수요가 눈에 띄게 높아지는 안마 용품, 제수 용품, 식품 등의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대량으로 선물 세트를 구매하는 중소기업자들을 위해 전화 상담을 통한 대량 구매 혜택 또한 마련하여 높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삼’으로 건강 챙기자
11번가와 옥션은 ‘홍삼’을 주력 선물

세트로 내놓았다.

먼저 11번가는 정관장과 함께 단독 구성상품을 준비해, ‘정관장 홍삼정육고’ (10g 20포)를 T멤버십 할인을 통해 3만6600원에 판매한다. 정관장의 제품들은 T멤버십 최대 22% 할인(최대 5000원) 혜택을 적용, ‘정관장 홍삼톤마일드’ (50ml 20포)는 3만9100원에 살 수 있다.

옥션은 특허받은 발효 기술을 적용해 흡수율이 뛰어난 ‘초월홍삼’ 브랜드를 단독 론칭했다.

옥션은 초월홍삼의 단독 선문정을 기념해 전 회원에게 5%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스마일클럽 회원에게는 8%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추석 시즌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구입하기 좋은 조건에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 ‘초월홍삼 데일리 스틱 2박스+송가인 초월페스티벌 초대권 1장’은 일반회원 5% 쿠폰 적용 시 18만

8100원에, ‘초월홍삼 데일리 스틱 3박스+송가인 초월페스티벌 초대권 2장’은 같은 기준 적용 시 28만2150원에 판매한다. 스마일클럽 회원만을 위한 상품으로 데일리 스틱 제품에 송가인 초월페스티벌 초대권, 한복디자이너 박슬녀 보자기까지 포함해 구성된 ‘초월홍삼 데일리 스틱 2박스+송가인 초월페스티벌 초대권 1장+박슬녀 보자기’는 스마일클럽 전용쿠폰을 적용해 18만2160원에 선보인다. 송가인의 초월페스티벌은 10월 27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2회 진행된다. 페스티벌 초대권은 우편으로 발송되며,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다.

◆추석 먹거리도 선주문해 합리적으로
신선한 식재료와 엄선된 제품을 판매하는 식품 기업 마켓컬리는 다음달 11일까지 다양한 추석 선물세트와 할인혜택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먼저, 추석에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독도 꽃새우&닭새우 세트’, ‘옥돔&갈치&굴비 세트’ ‘태우+한우 실속 구이 세트’ ‘이베리코 모듬구이’ 등이 있다.

여기에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3%, 30만원 이상 구매하면 5%, 50만원 이상 구매하면 7%의 할인률을 적용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선물세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30 셀프 뷰티족 가세... ‘홈 뷰티’ 폭발적 성장

뷰티 디바이스 시장 매년 10% 성장
2022년 1조6000억 규모 예상

피부 관리와 안티 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홈 뷰티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9일 LG 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00억원 규모였던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해 2018년 말에는 5000억 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2022년에는 1조 6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홈 뷰티 디바이스 상품군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3.7% 이상 성장하며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이 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고가의 홈 뷰티 디바이스를 구매했다면, 최근에는 홈 뷰티 디바이스의 종류



고객이 미스트를 체험하는 모습.

/롯데백화점

와 가격대가 다양해지면서 젊은 2030 세대도 구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높은 인기는 자신이 가꾸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가치 소비’ 트렌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명 브랜드에서 출시된 피부톤·탄력 관리 기기 ‘LED 마스크’의 가격은 100만원

이상, 얼굴 세안 기기인 ‘클렌저’도 30만원 이상 판매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얼굴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동시에 전문가가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셀프 뷰티족’ 트렌

드도 홈 뷰티 디바이스의 인기가 높아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피부과, 에스테틱과는 달리 집에서 휴식 시간 동안 간편하게 매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에 관련 매출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피부 관리 기기 LG전자의 ‘프리얼’은 올해 1~7월 동안 약 20% 대의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삼성전자의 신규 입점 점포가 늘어나면서 피부 관리 기기 ‘셀리턴’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00% 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롯데백화점은 자체 편집 매장 ‘엘리든 플레이’와 ‘엘리든 스튜디오’를 통해 소형 가전제품 전문 회사 ‘트로닉’의 살균효과를 갖춘 ‘워터테라피 수소 미스트’를 단독으로 14만 8000원에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일주일간 ‘갯성비 브랜드워크’

“SSG닷컴에서 이마트를 ‘노크(노브랜드+피코크)’하고 쇼핑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SSG닷컴은 25일까지 일주일간 5개 PB(자체브랜드)를 모아 ‘갯성비 브랜드워크’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참여 브랜드는 초저가 ‘노브랜드’, 가정간편식 ‘피코크’, 생활용품 ‘자

주’, 반려동물 용품 ‘몰리스펫샵’, 의류 ‘데이즈’다. 요즘 세대 말로 ‘최고’를 의미하는 ‘갯’과 ‘가성비’ 단어를 결합한 ‘갯성비’를 내세웠다.

SSG닷컴은 이마트에서만 구매 가능한 가성비 높은 자체브랜드 및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할인’ 자체에만 집중하는 여타 행사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노브랜드 등 자체 브랜드 라인업 카테고리 경계 허물고 품목 다양화

SSG닷컴은 이번에 식품부터 반려동물 용품까지 상품 카테고리 경계를 허물고 합리적인 가격에 장보기가 가능한 자체 브랜드로 행사 라인업을 구성했다. 대외 인지도가 높은 ‘노브랜드’와 ‘피코크’ 상품은 물론, ‘자주’, ‘몰리스펫샵’, ‘데이즈’까지 장바구니 품목을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이번 행사에서는 ‘브랜드별 베스트 상품’과 ‘이번 주 핫이슈 상품’으로 각각 8개씩 준비했다. 판매량이 높은 스테디셀러와 계절에 맞는 여름 시즌성 상품이다.

우선 ‘브랜드별 베스트 상품’으로는 ‘노브랜드 굿밀크 우유’, ‘피코크 메밀소바 4인 기획’, ‘자주 조용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 ‘몰리스 슈아응가 일회용 패드’, ‘데이즈 케미 브라탑’을 선정했다.

/신원선 기자

유통 단신

이마트24

펭귄팍빙수·5F파르페 등 아이스크림 상품군 강화

편의점 이마트24는 ‘펭귄팍빙수’와 ‘5F파르페 2종’을 출시하고 컵 아이스크림라인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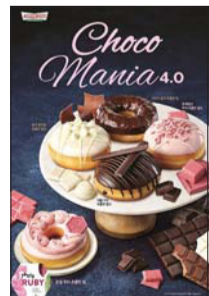
/김민서 기자 min0812@

펭귄팍빙수는 얼음 입자가 큰 기존 빙과형 팍빙수와는 달리 젊은층 입맛을 고려해 작은 얼음 알갱이와 연유,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구성했다. ‘뉴트로(New+Retro)’ 트렌드를 반영해 복고풍의 글씨체로 세로쓰기를 한 것이 특징이다.

크리스피크림도넛

‘초코매니아 4.0’ 한정 판매

크리스피 크림도넛이 신제품 ‘초코매니아4.0’ 신제품 5종을 한정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10월 6일까지 한정 판매하는 신제품은 부드러운 웰도넛에 진한다크 초코크림을 충전하고 초코스틱을 토포한 ‘더블다크 초콜릿 필드(1세대)’, 바삭한 식감의 밀크 초콜릿 맛인 ‘크런치 밀크 초콜릿 링(2세대)’와 ‘로열 루비 초콜릿 링’이다. /박민용 기자 parki7854@

셀트리온, 글로벌영토 확장 전걸음... 유럽 등 법인 추가



**‘유럽 직판체제 구축’ 가시화
상반기에만 10개국 법인 출자
내년 아시아·남미 등 기타지역
2021년 美·캐나다에 구축 목표**

셀트리온그룹이 해외 법인을 확장하며 직접판매(직판)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해 상반기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아르헨티나, 페루, 노르웨이,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칠레 등 10개국에 해외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을 마쳤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 바이



셀트리온헬스케어

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렘시마’, ‘허쥬마’, 트룩시마’ 등의 해외 영업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계열사다. 셀트리온은 그동안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해왔으나 최근에는 직판을 추진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10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 해외 영업 및

판매를 위한 거점을 마련해왔다. 특히 해외에서 직판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난해부터 해외법인 설립이 부쩍 늘어났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올해 안에 유럽 내 직판체제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부터 밝혔다. 직판체제를 구축하면 현지 파트너사에 지급되는 30~55% 수준의 수수료를 줄이고, 비용을 15~2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복안이다.

셀트리온은 2020년까지 아시아 남미 등 기타지역, 그리고 2021년까지 세계 최대 제약 시장인 미국 캐나다에 직판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글로벌 직판체제를 완성하는 데만 총 4조원을 투입한다.

이런 계획은 점차 가시화되는 추세다. 실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해에

10개국(네덜란드·미국·호주·콜롬비아·뉴질랜드·영국·아일랜드·덴마크·멕시코·오스트리아)에 해외법인을 설립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0개국 법인 출자를 완료했다. 해외사업을 위한 법인 출자가 없었던 2017년과 달리 지난해부터 해외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중남미 6개국 현지법인을 중심으로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직판체제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는 목표로 내놨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해외 진출이라는 커다란 목표 아래 직판 체제 구축, 파트너사와의 협업 등을 위해 현지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유럽과 중남미를 중심으로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동아제약, 건기식·화장품 공략 강화

지놈엔컴퍼니와 제품개발 등 협약

동아제약은 서울시 용두동 본사에서 지놈엔컴퍼니와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헬스앤뷰티(Health & Beauty) 제품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놈엔컴퍼니의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활용해 일반의약품, 건기식과 화장품 등 신규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사는 지놈엔컴퍼니가 보유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해 공동연구 및 상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를 합친 말로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과 그 유전정보를 말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생성되는 원리와 질병 간의 연관성 등을



최호진 동아제약 사장(오른쪽)과 배지수 지놈엔컴퍼니 대표가 19일 서울시 용두동 동아제약 본사에서 열린 Health & Beauty 제품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분석할 수 있어 신약 개발 및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개발에 쓰인다

2015년 설립된 지놈엔컴퍼니는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개발하는 바이오벤처기업이다.

동아제약 최호진 사장은 “이번 지놈엔컴퍼니와 협력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신규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솔라리스’ 임상 3상 돌입

10개국 환자 50명 대상
2021년 7월까지 마무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희귀질환 치료제 솔라리스의 바이오시밀러 ‘SB12’의 임상 3상을 시작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9일 SB12의 임상 3상시험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글로벌 임상시험 정보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독일에서 진행된 SB12의 임상 1상을 올해 초 완료했으며, 임상 3상은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유효성, 안전성, 약동학 및 면역원성을 비교하게 된다. 이번 임상 3상은 한국을 포함한 총 10개국의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오는 2021년 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솔라리스(Soliris)는 미국 제약사 알렉시온(Alexion)이 개발한 ‘발작성 야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전경. /삼성바이오에피스

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다. PNH는 혈관 내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혈전이 생기고, 야간에 용혈 현상이 생겨 혈액 색 소변을 보이는 증상을 보이는 희귀질환이다.

솔라리스는 대표적인 고가(高價) 바이오의약품으로, 지난 해 글로벌 매출 규모는 35억6300만 달러(약 4조3000억

원)를 기록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솔라리스 1바이알(30ml)의 가격은 비급여 기준 약 600만원으로, 성인 기준 투약비용이 연간 약 5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국적 제약사인 암젠이 솔라리스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이수앱지스가 개발하는 바이오시밀러가 임상 1상 단계에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자가면역질환 및 중양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며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희귀질환 치료제로 개발 분야를 넓혔다”며 “SB12의 성공적 개발을 통해 고가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동국제약 임직원들로 구성된 ‘인사돌 사랑봉사단’ 26명의 봉사단원들이 서울시 광화문 경복궁에서 폭염 속에서도 잡초 제거 등 정화활동을 펼쳤다.

동국제약 ‘인사돌 봉사단’ 폭염 속 봉사활동

동국제약 임직원들로 구성된 ‘인사돌 사랑봉사단’이 최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인사돌 사랑봉사단은 매일 정기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문화재 지키기’

‘1사1하천 가꾸기’ 등 자신이 희망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선택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서울시 광화문 경복궁에서 26명의 봉사단원들이 폭염 속에서 잡초 제거 등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세경 기자

보령제약, 멕시코서 ‘듀카브’ 발매... 8378만달러 시장 공략

(고혈압 복합제 신약)

스텐달사와 ‘아라코듀오’ 론칭

보령제약이 고혈압 신약 카나브패밀 라인 듀카브(고혈압 복합제)를 멕시코에서 발매했다고 19일 밝혔다.

멕시코에서는 2014년 아라코(카나브 현지명), 2016년 디아라코(카나브 플러스 현지명)를 론칭한 데 이어 3번째로 아라코듀오(듀카브 현지명)가 발매됐다. 멕시코 현지 판매는 파트너사인 스텐달이 맡는다.

보령제약은 현지시간 15일 멕시코시에 위치한 파파로테 무세오 델 니노 박물관에서 ‘아라코듀오(듀카브 현지명) 발매식 및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아라코듀오는 ARB(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 계열인 피마사르탄(카나브 성분명)과 CCB(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인 암로디핀을 결합한 고정용량복합제다. 아라코듀오는 한국에서 진행된 3상 임상시험에서 단일제 대비 약 2.7배의 수축기혈압 강하효과뿐 아니라, 혈압조절

율도 약 50% 정도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단일제 대비 유사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다.

아라코듀오는 2016년 8월 한국 발매 이후 매월 10% 이상 원외처방액(UBIST 기준)이 성장하고 있는 듀카브의 해외 첫 론칭이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듀카브는 국내에서 181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으며, 2019년 상반기에만 125억원을 기록(UBIST 기준)하고 있다.

멕시코 ARB+CCB 항고혈압복합제 시장 규모는 8378만달러(2018년 IMS 데이터 기준) 규모로 보령제약과 스텐달은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발매 심포지엄에서는 아라코 현지 임상상을 진행했던 에르네스토 카르도나 누노 멕시코 과달라하라대 교수가 강연했다. 카르도나 교수는 아라코듀오 출시 전 아라코(피마사르탄)와 암로디핀을 복합 처방한 자신의 실제 처방사례를 발표했다.

카르도나 교수는 “아라코(피마사르탄)와 암로디핀을 복합처방한 결과 단일 처방보다 우수한 혈압강하 효과를 보였다”며 “아라코듀오 론칭을 통해 멕시코 고혈압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 고혈압 치료성과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텐달 카를로스 회장은 “아라코듀오는 최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ARB+CCB복합제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의약품”이라며 “임상을 통해 증명된 효능과 안전성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 점유율을 확보할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령제약 이삼수 사장은 “아라코듀오의 강력한 혈압강하 효과는 최근 강조되는 적극적인 혈압관리에 필요한 치료제로서 처방자들의 치료옵션은 물론 환자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에서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파트너인 스텐달과의 마케팅 시너지를 높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안착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LS니꼬동제련, 초등학생 위한 과학교실 개최

울산 초등학생 20명에 교육·체험 제공

LS니꼬동제련은 7월 29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울산시 울주군지역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온산읍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를 진행했다.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는 올해 13번째를 맞았다.

매년 방학 기간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과학실습 교육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LS사업장이 있는 울산, 동해, 청주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공계 전공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초등학생들과 함께 태양전지 보트, 자기부상열차, 자기발전 손전등 등 다양한 과학키트를 만들고 학습을 지원해 주는 것이 특징



LS니꼬동제련이 7월 29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울산시 울주군지역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과학교실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를 진행했다. /LS니꼬동제련

이다.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안성 LS미래원에서 비전 캠프도 열렸다. 캠프에서는 지역별 초등학생 180명이 모

여 과학 골든벨, 과학을 담은 팀 빌딩 활동, 진로 체험, 마술쇼, 명사 특강, 각종 레크리에이션으로 함께 소통하고 꿈에 대해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협뉴스

SPC그룹, '2019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6관왕

SPC그룹이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분야 대회인 '2019 레드닷 디자인어워드'서 총 6개 부문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분야는 모두 제품디자인 부문으로 파리바게뜨의 '프레쉬데일리밀크', 파리크라상 '선물류 패키지', 티트라 '선물상자', 배스킨라빈스 '리뉴얼 패키지', 던킨도너츠 '롱비치블루', SPC삼립

'육식본능' 등 6개 제품이다. 파리바게뜨의 우유 제품인 '프레쉬데일리밀크'는 프랑스 삽화가인 '장 줄리앙(Jean Jullien)'과 협업한 패키지로 파리바게뜨 고유의 색채와 장 줄리앙의 자유분방한 삽화가 '빵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는 우유'라는 제품 특성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론칭한 블렌디드티 브랜드 '티트라'의 선물상자도 스텐실 기법으로 재해석한

서체와 로고, 차(茶)마다 개성 있는 패턴을 입힌 패키지를 강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배스킨라빈스는 스테파노 지오반노니(Stefano Giovannoni)와 협업한 리뉴얼 패키지 수상했다. 던킨도너츠는 삽화가 '예예 윌러(Yeye Weller)'와 협업한 커피 원두 '롱비치블루' 파우치와 컵 슬립 등으로 수상했다. SPC삼립도 육가공품 간편식 브랜드인 '육식본능'에 시즐 이미지와 코믹스풍의 캐릭터를 적용해 육가공 간편식의 특성을 재치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LCC, 초심으로 돌아가라



기지수첩

정연우 (산업부)

“화를 되돌려 복으로 만들고 실패로 인해 공을 이룩한다.”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는 연나라와의 조약을 파기하고 10개성을 점령했다. 그러자 당대의 정치가인 소진(蘇秦)은 제나라 왕을 찾아가 연나라 10개성을 아무 조건 없이 돌려주면 천하의 중심은 제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나라 왕이 의문을 제기하자 소진이 말하길 연나라에게 10개성을 돌려주지 않으면 연나라 뿐만 아니라 그와 동맹관계에 있는 강국 진나라의 원한을 사게 될 것이고 반대로 돌려주면 두 나라의 존경을 받아 왕의 호령에 천하가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무리한 영토확장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한 것이다. 이에 제왕은 아주 기뻐하며 연나라에 성을 돌려주고, 천금을 풀어 사과를 한 후, 머리를 조아리며 진나라에 형제의 나라가 될 것과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했다. 소진의 말대로 제나라는 훗날 진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으로 떠올랐다. 사자

성어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말의 유래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일본여행거부운동으로 인한 여객 수요 감소, 중국 측의 신규 노선 취항 거부, 실적 악화 등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앞서 항공업계는 국내에서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본 노선을 중단하거나 감축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 여행객 수가 줄어들 것을 감안해 중국 노선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측의 거부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LCC들이 노선 증편과 프로모션 이벤트를 연이어 발표하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승무원 훈련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티웨이항공의 결정은 항공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덕목은 고객 수요 확보가 아닌 고객 안전이라는 점을 깨닫게 한다. 항공 여객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이라는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나선 것.

이처럼 단순한 노선 증편이 일본 여객 수요 감소와 실적 악화를 뒤집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되진 않는다. 위기상황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 향후 비전을 생각해야 한다. /ywj964@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8월 20일 (음 7월 20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48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됨을 명심. 60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통일을. 72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을 조심. 84년생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라.
- 소** 37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형국. 49년생 물이 너무 많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61년생 두려워 말고 일을 시작하라. 73년생 친구의 불운이 안타깝다. 85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 있는 그대로.
- 호랑이** 38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50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얻은 정보가 큰 이득을 가져온다. 62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라. 74년생 검은 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86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하는 날.
- 토끼** 39년생 여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51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 63년생 확실한 복수는 상대를 믿는 것. 75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성실함으로 극복. 87년생 우물에서 송눈 찾지 말고 매사 순서대로.
- 원숭이** 40년생 기량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52년생 자식도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아라. 64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접근 금지. 76년생 더러워진 옷은 세탁하면 된다. 88년생 아랫사람의 충고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 돼지** 41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뚱지 않는다. 53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65년생 진취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목표가 될 수 있다. 77년생 서두르면 손해. 89년생 삼재이니 외국 가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계획할 것.
- 말** 42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54년생 동료와 의견 차이로 약간의 손해가 발생. 66년생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78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조심. 90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행운.
- 양** 43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 보자. 55년생 유익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 67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 79년생 팔짱을 끼고 여유 있게 관광. 91년생 거울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할 뿐이니 물두해보라.
- 원숭이** 44년생 심신은 고단하나 재물은 들어온다. 56년생 자식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니 근심이 더 쌓인다. 68년생 뜻은 원래하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80년생 마음이 우울하니 친구가 웃을 일을 만들어 준다. 92년생 사랑이 넘치는 날.
- 닭** 45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57년생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을 할 수 없다. 69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쓰자. 81년생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것에 신경. 93년생 분실수가 있으니 조심.
- 개** 46년생 등분서주 바쁘게 뛰어다녀도 별 이득이 없다. 58년생 호감이 가는 일거리가 주어진다. 70년생 흉탕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82년생 뒷사람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 94년생 욕심이 지나치면 성사되기 어려우므로 양보.
- 돼지** 47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좋은 일이 올 것이다. 59년생 무리수를 쓰다가 본전도 못 찾는다. 71년생 정제되었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 83년생 먼지가 심하니 나에게도 영향이 있다. 95년생 사랑타령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라.

김상희의四季

허망한 꿈을 꾸는 사람들

문제가 될 만큼 금전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허망한 꿈을 꾸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탐욕과 욕심이 함께 한다. 시장경제의 합리적 경계를 넘어선 과도한 수익률이나 일확천금을 꿈꾸며 추진하는 일들에 대부분 사기성이 농후한 것인데 자신 만큼은 행운을 기대하며 꿈속의 성을 쌓는 것이다. 사업을 한다며 평생 모은 돈이나 누군가에게 빌려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레퍼토리가 비슷하다. 어떤 유명 배우의 모친이 금전문제로 세간에 물의를 일으킨 것도 인도네시아 광물 채굴 사업권을 따내면 몇 백 억원의 특별용자를 받게 되고 그걸로 그간의 빚도 다 갚을 수 있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항상 즐겨 나오는 목록들이 있다. 이런 황당한 얘기들의 공통점은 사업터전이 국내가 아닌 국외라 하는 점이다. 쉽게 가서 현장을 확인하기도 힘들고 현장을 찾아간다 해도 몇몇 사람 짜고 여기가 사업장이네 하면서 눈가림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필자의 신도중 M씨도 칠레에서 한다는 사금 채취사업에 투자를 권유받았는데 일 년 이내에 두 배 이상의 수익률을 장담하며 하도 믿는 사람이 열심히 권유하는 지라 칠레 까지 가서 답사를 했다. 실제로 현장이라 하는 곳은 의심할 만한 점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현장은 실제 자신들의 사업장이 아니고 그 나라의 브로커와 짜고 보여준 현장이었다. 당시 M씨의 세운에 망신살과 곧 바뀔 대운이 겁재(劫災)운으로 펼쳐졌는데 운은 어쩔 수 없는지 현장을 다녀와 보니 믿을 만하다며 십 여년 전 돈으로 일억 원을 투자했다. 명퇴금으로 받은 돈을 거의 날린 것이다. 화병을 얻은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6			4			
9		7		8		5		2
	2		4				7	
				6		3		4
	9			3				1
1		6		2				
	7				6			9
3		4		1		2		8
	1				8			3

		3	6		4			7	1	
2						1				5
1				2			7			8
					3					5
			4			5				6
		5			7	6	2			4
		6								7
		7			6	3	1			5
5				4				8		6

스도쿠 정답

9	8	1	8	7	2	6	1	5
8	5	2	6	1	4	7	9	3
1	6	7	9	5	8	3	2	4
4	8	6	7	2	5	9	3	1
5	1	9	4	8	7	6	2	3
7	2	8	1	9	6	5	8	4
3	4	8	5	6	7	1	2	9
2	9	5	8	1	4	7	6	3
6	7	1	2	4	9	3	5	8

문제 제공= **보뉴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6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369호

건강해지는 식품업계... 4.3兆 건기식시장 쟁점음

〈건강기능식품〉

정부규제 완화로 시장 폭풍성장
통합 내 하위 브랜드 론칭하고
연령·기능별 등 제품군 세분화
2030 타깃 오프라인 채널 확대



CJ제일제당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리턴업'



빙그레 TFT 비바시티

/각사

식품업계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며 새로운 먹거리로 가능성으로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기식 시장 규모는 4조3000억원으로 2016년보다 20% 가량 성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건기식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사업자의 사전 신고 의무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관련 시장 성장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체들은 새로운 건기식 브랜드를 론칭하거나 타깃을 세분화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건기식 전문 브랜드인 '리턴업'을 론칭했다. 국내 건기식 업계 최초로 40세 이후 생애전환기별 맞춤형

건강 해결책을 제시하는 '스마트에이징' 브랜드다. 신체의 변화를 급격하게 느끼는 40세부터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액티브시니어까지 각 연령대에 맞는 건강 해결책을 제시한다. 현재 건기식 시장이 성별 중심의 제품으로 구성돼 있는 것과 달리 연령별, 기능별로 제품군을 이원화 해 기존 제품들과 차별점을 뒀다.

CJ제일제당은 '기초영양' 제품군과 '기능성' 제품군 두 개 카테고리로 '리턴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리턴업 발효 비타민'을 시작으로 향후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발효 기술과 식품첨가물을 배제하는 클린 라벨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빙그레는 건강 지향 통합 브랜드 'TFT'를 론칭했으며, 하위 브랜드로 여성 건강 전문 브랜드 '비바시티'로 건기식 시장에 첫발을 내딛었다. 'TFT'는 맛(taste), 기능(function), 신뢰(trust)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브랜드로 '맛있으면서도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목표로 삼고 있다. 'TFT'는 건강 지향 통합 브랜드로 각 제품의 속성에 따라 다양한 하위 브랜드와 제품들을 내놓을 계획이다.

처음 출시된 여성 건강 전문 브랜드 '비바시티'는 28~35세 여성을 주 타깃으로 하여 스틱젤리 3종과 구미젤리 3종을 출시한다. 스틱젤리 3종은 각각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히알루론

산,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군(B1, 나이아신, B6),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같은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구미젤리 3종은 각각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연,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비타민C,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리골드꽃 추출물(루테인) 성분이 들어있다. 스틱젤리와 구미젤리 제품 모두 하루 2개씩 섭취하면 기능성 성분들의 1일 권장 섭취량을 충족할 수 있다.

KGC인삼공사는 대표 브랜드 '정관장'을 통해 연매출 1조3000억원 이상을 달성했다. KGC인삼공사는 '종합건강 기업'을 목표로 비홍삼 건기식과 화장

품 등 신사업 다각화에도 나서고 있다. '굿베이스', '알파프로젝트', '화애락' 등 자체 건기식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화애락 이너제틱'을 출시하면서 기존 시니어층을 벗어나 젊은 여성 소비층으로 타깃을 옮겼다.

동원F&B는 홍삼전문브랜드 '천지인'과 건기식브랜드 'GNC'를 운영하고 있다. GNC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헬스케어를 제공한다는 강점이 있다. 판매처도 기존 대형마트와 자사 온라인몰 위주에서 올리브영 등 젊은 소비층이 많이 찾는 채널로 넓히고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기존 건기식 브랜드를 'MPRO'로 통합하고 제품군을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건기식 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업들의 건기식 사업 진출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4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건기식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metroseoul.co.kr

몰강스에 딱!... 아이파크몰 '인기몰이'

카페거리·키즈존·먹거리 등 다채
즐길거리 많아 가족·연인 발걸음



아이파크몰 더센터 카페거리 /HDC아이파크몰

용산아이파크몰이 쇼핑몰 내 카페거리 조성, VR체험존 및 키즈체험 시설 등 다양한 먹거리와 놀거리들을 채워 도심 속 대표 여가생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아이파크몰에는 항상 긴 줄에 서서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카페가 있다. 아이파크몰 더센터 4층에 위치한 흑당버블티 대표 브랜드 '타이거슈가' 매장이 바로 그곳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통점 내에 입점 되어 있는 매장이자다.

아이파크몰은 '타이거슈가'를 비롯해 식물과 사람들이 함께 숨쉬는 공간으로 꾸며진 '식물학카페', 무지개색 케이크로 유명한 '도레도레', 물·시럽 없이 국산 사과와 다양한 과일·채소만을 사용해 착즙하는 '100% 착즙주스'가 특징인 '조앤더주스' 등 여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카페들을 한자리에 모아 쾌적하게 쇼핑몰 안에서 '카페거리'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 했다.

뿐만 아니라 용산아이파크몰은 쇼핑뿐만 아니라 즐기고 체험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요소들을 함께 갖추고 있어 가족, 연인간에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콘텐츠들이 가득 하다.

아이파크몰 리빙파크 6층에 위치한 '웹피언1250'은 서울시와 수도권 인근의 어린이들까지 꼭 가보고 싶어하는 핫한 놀이 공간으로 3~4세부터 초등 고학년까지 즐길 수 있는 놀이로 가득하며, 아이파크몰 VR존에서는 국내 쇼핑몰 중 최대 규모로 스포츠와 놀이기구, 레이스, 슈팅게임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신원선 기자

G마켓 "13개 TV홈쇼핑 실시간으로 비교"

'홈쇼핑 포털'로 서비스 전면 개편
검색·키워드 등 기능 업그레이드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이 홈쇼핑 포털로 거듭난다.

G마켓은 홈쇼핑 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모바일 내 관련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고 오는 25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홈쇼핑사의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해당 채널은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K쇼핑 ▲공영쇼핑 ▲N S홈쇼핑 ▲신세계TV쇼핑 ▲홈앤쇼핑 ▲쇼핑엔티 ▲W쇼핑 ▲SK스토아 ▲GS샵 ▲GS마이샵 등 13개의 국내 대부분의 홈쇼핑이 포함된다.

G마켓 고객들의 방송 시청현황을 '실시간 라이브 랭킹' 순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품이 라이브 방송

중이며, 관심있게 보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모바일에서만 라이브 방송만을 볼 수 있었지만, 개편 후 PC에서도 생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키워드와 상품 두 가지 방식의 방송 알림 기능도 신설했다. 생방송 30분 전과 시작 시에 앱 알림 또는 카카오톡 알림 중 선택해 방송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첫 번째 키워드 방식은 모바일 홈쇼핑 앱 우측 상단에 위치한 종모양의 '알림 아이콘'을 클릭한 뒤 '나의 알림' 코너에서 키워드를 등록하면 된다. 예컨대 옥주부, 롱패딩, 두피관리 등으로 관심 키워드를 설정할 수 있으며, 관리창을 통해 키워드 수정 및 삭제도 가능하다. 두 번째로 홈쇼핑 탭에서 관심 있는 상품의 '알림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상품의 방송이 편성될 경우 안내해준다.

'홈쇼핑 포털'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검색 기능도 업그레이드했다. 먼저 G마켓 메인의 통합검색창에서 키워드를 검색해 현재 방송중인 홈쇼핑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카테고리 별 검색도 가능하다. 패션의류, 패션잡화, 뷰티, 식품, 도서 등 12가지 카테고리를 설정해 관심 품목을 홈쇼핑탭에서 보다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홈쇼핑 베스트' 코너를 통해 제품별 인기 순위를 알려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

홈쇼핑 서비스 개편을 기념해 오는 25일까지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키워드 또는 상품 알림을 등록하면 즉시 할인쿠폰 발급이 가능하다. 참여 고객 모두에게 홈쇼핑 제품 2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15% 할인쿠폰'을, 스마일클럽에게는 2만원 이상 구매 시 적용되는 '20%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가을 느낌 물씬... '데어 루즈 벨벳' 10종

미샤 가을·겨울 겨냥 신상품 선봬



부드러운 벨벳 제형 제품이지만 촉촉한 입술을 유지시켜준다는 강점이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주)에이블씨엔씨 화장품 브랜드 미샤는 '데어 루즈 벨벳 가을·겨울(F/W)' 10품목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데어 루즈 시리즈는 미샤가 지난 2월 6일 '매일 다른 기분을 립 컬러로 표현할 수 있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야심차게 선보인 립 메이크업 제품이다. 총 16가지 색상으로, 지난달까지 23만 개 이상이 판매됐다.

데어 루즈 시리즈에는 '포슬린 벨벳

젤' 기술이 적용됐다. 이는 입술 사이를 도자기 표면처럼 매끄럽게 표현하는 미샤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매트하고 부드러운 벨벳 제형 제품이지만 촉촉한 입술을 유지시켜준다는 강점이 있다.

'더마 리페어 시카 올 클린' 아이오펜, 앰플 출시

아이오펜은 '더마 리페어 시카 올 클린 앰플'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더마 리페어 시카 올 클린 앰플에는 ▲햇빛으로 인한 손상을 케어하는 '마데카소사이드' ▲피부장벽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판테놀' ▲겨칠어진 피부 장벽 개선에 효과적인 '알란토인' ▲고순도의 정제된 '히아루론산'이 함유됐다.

'올 클린 청정 설비'에서 제작됐으며, 하이포 알러지 테스트와 안자극 테스트 등을 완료해 예민한 피부를 가진 고객들이 자극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김민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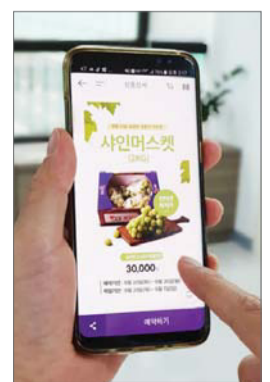
"CU서 '샤인머스켓' 부담없이 즐기세요"

멤버십 앱서 25% 할인 예약판매

편의점 CU는 20일에서 26일까지 멤버십 애플리케이션(앱) '포켓CU'를(사진) 통해 샤인머스켓(2kg)을 시중가보다 25%이상 저렴한 3만 원에 예약 판매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되는 '샤인머스켓'은 소백산맥 추풍령 자락에 위치한 충북 영동군에서 생산된다. 이곳은 높은 일교차로 뛰어난 품질의 과일이 나는 곳이다.

CU는 지난 8일 진행한 1차 예약 판매에서 준비한 물량(100개)이 두 시간



만에 소진된 데 따라, 2차 판매에서는 물량을 두 배로 늘렸다. 구매는 CU 멤버십 앱인 '포켓CU'에서 상품을 선택해 결제한 후, 본인이 지정한 가까운 CU매장에서 29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수령하면 된다. /김민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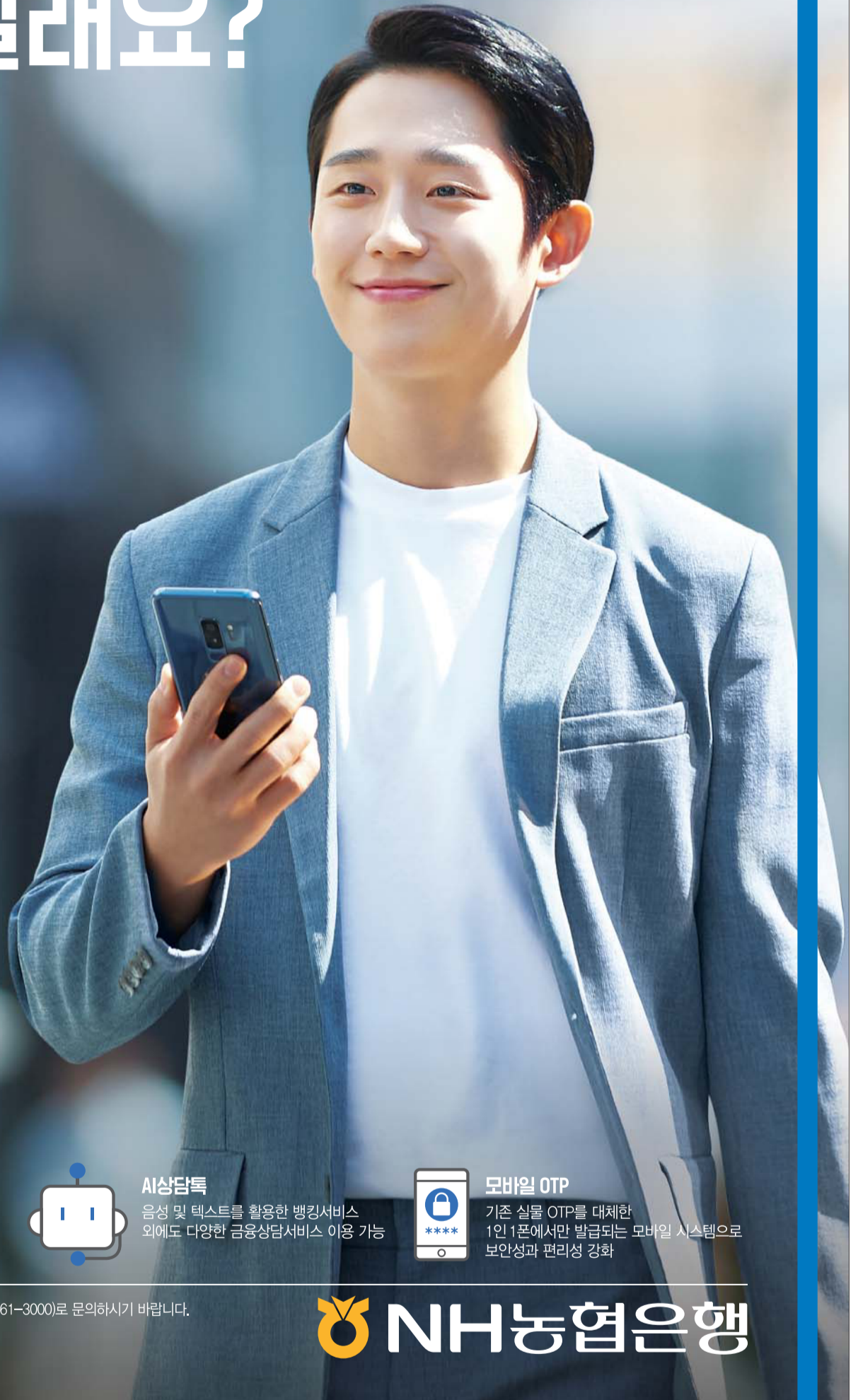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은행의 모든 것을 한번에 편하게! 저와, 한편 하실래요?

은행과 기술이 NH스마트뱅킹 one up으로
스마트하게 한편이 되었습니다.
은행의 모든 것을 한번에 편하게!
NH스마트뱅킹 one up과 함께
더 빠르고 편리해진 금융을 만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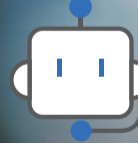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스마트뱅킹 one up



개인별 맞춤 서비스
고객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별 맞춤화면 제공 및
금융상품 추천



키보드뱅킹
문자나 SNS실행 중에도
모바일 키보드를 이용한
계좌송금 가능



시상답톡
음성 및 텍스트를 활용한 뱅킹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금융상담서비스 이용 가능



모바일 OTP
기존 실물 OTP를 대체한
1인 1폰에서만 발급되는 모바일 시스템으로
보안성과 편리성 강화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201900001702 (2019.05.15.~2020.05.31.) ※NH농협은행 디지털채널부 개발상품

NH농협은행



올 여름휴가는 농촌에서 즐기는 뉴트로 감성여행 전국 팜스테이 마을에서 즐기세요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 NH 농협



지역의 이름을 딴 별도의 식물명을 갖고 있는 '홍도 원추리' /뉴스시스

섬 주민이 직접 '섬 이야기' 들려준다

전남도 '섬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전라남도는 섬 주민이 직접 그 섬만의 매력을 찾아내고 이를 관광 콘텐츠화해 여행객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는 '섬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섬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은 섬을 가장 잘 아는 현지 주민을 '섬 해설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섬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섬을 소개할 코스와 이야기를 만들어 따뜻한 정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관광 해설사로 거듭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14개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육지에서 접합교육이 아닌, 섬으로 찾아가는 현장교육 방식이다. 섬 전문가, 작가, 관광 해설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직접 섬을 찾아가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토론과 교육을 진행한다. 주민들의 생각을 기초로 해 섬 여행 코스와 테마를 디자인하고 이에 따른 해설 시나리오를 만들기 때문에 주민의 생각으로 만드는 '섬 콘텐츠'를 갖게 된다. /전남=봉채영 기자

인천 남동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고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19일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국가산업단지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사업지구로 19일 지정 고시됨에 따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남동구는 지난 2014년 2월 6일 토지거래허가구역(녹지지역)이 전면 해제된 이후 그 동안 허가구역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전체 지역(9.5km²)이 대상이다. /인천=백용찬 기자

"도시디자인, 지역 대학생과 함께 만들어요"

익산시 '익산 디자인 위크' 운영

익산시 공공디자인에 지역의 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역의 도시디자인을 설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익산 디자인 위크(Iksan Design Week)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운영을 시작했다

고 19일 밝혔다. 원광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중에도 많은 디자인관련분야 학생들이 참여해 공공디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강의를 시작으로 익산시에서 추진 중인 경관·공공디자인·도시재생사업의 디자인분야에 대한 사업내용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눴다. /전북 익산=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8월 20일(화)
음력 : 7월 20일

수도권 날씨
33~2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52 | 해질 / 19:19

연천 18/32, 동두천 18/32, 가평 18/32, 파주 19/32, 서울 22/33, 양평 20/32, 인천 23/32, 수원 21/33, 용인 21/33, 평택 20/33, 백령도 21/2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천 연수구 지역화폐 '돌풍' 49일 만에 결제액 1000억 돌파

'연수e음' 전국 최단기록 갈아치워 매출증가·소비 외부유입효과 '특특' 30만원 이하 사용자 49% 가장 많아

인천 연수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중인 지역화폐 '연수e음'이 발행 49일만에 누적 결제액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전국 최단기간 기록을 갈아치웠다. 또 지난 6월 29일 첫 발행 이후 주사용업종도 초기 학원비에서 음식·식품업, 병원·약국, 유통업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데다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소비의 외부 유입효과도 특특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플랫폼 시행사 '코나아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연수e음' 누적결제액이 1016억 원을 넘어서 연수구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기간에 1000억 원을 돌파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는 지난 5월 두 달 먼저 발행을 시작한 서구 '서로이음'의 1000억 돌파 기간인 71일보다 22

일이나 앞당긴 기록으로 가입자도 1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연령별 사용비율은 ▲31~40세가(28.13%) 가장 많았고 ▲41~50세 (26.99%) ▲21~30세 (18.14%) ▲51~60세(15.26%) ▲14~20세(5.17%)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별 사용금액은 주소비층인 ▲41~50세(37.33%)가 가장 많았고 ▲31~40세(31.92%) ▲51~60세(14.26%) ▲21~30세(10.7%)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구간별 거래현황도 30만원 이하 사용자가 전체의 49.71%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하 구간 사용자가 전체의 83.51%를, 100만원~200만원 사용자는 10.41%를 차지했다. 사용 업종별로도 지난달 누적 결제액 700억 원 중 ▲음식점/식품 185억 원 ▲학원 137억 원, ▲병원/약국 93억 원, ▲유통업 72억 원, ▲취미/레저 43억 원, ▲주방/가구/가전 3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우려했던 원도심과 신도심간

사용 비율도 연수구 전체 35만 명 중 15만 명이 거주하는 송도동 사용률이 51%를 차지해 비교적 원·신도심의 사용률도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 거래액은 신도심의 교육비 지출이 높은 ▲송도 서부지역이 70억 원(12%)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경찰청 주변이 58억 원(10%) ▲트리플스트리트 27억 원(5%) 순으로 나타났다. 원도심 권역별 거래액도 ▲맛고을 상권이 43억 원(8%)으로 가장 많았고 ▲나사렛병원 일대 36억 원(6%), ▲스퀘어원 22억 원(4%), ▲옥련전통시장도 21억 원(4%)을 기록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내·외부의 데이터와 정보 등을 활용해 연수e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통한 지역 복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metroseoul.co.kr



방학 동안 많이 자랐어요 19일 오전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태장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키를 재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59억 지원

하반기 육성자금 융자신청 접수 중기 3억·소상공인 2000만원

전주시가 경영난과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생산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9년 하반기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는 총

59억원 규모로, 시는 제조업 42억원과 소상공인 2억원, 청년기업 15억원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융자 한도액은 운전·창업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 소상공인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1년 연장가능)으로, 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 중

일반기업은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바이전주 업체, 우수항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각각 3.5%의 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접수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업체는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융자평가표에 의거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융자금액이 결정된다. 또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8개 금융기관에서 2개월 이내 융자(대출)를 신청해야 한다. /전주=봉채영 기자

전남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시동'

14억 들여 선박안전장비 보급

전라남도는 10t 미만 소형어선의 항해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대상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장비를 지원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조업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전라남도는 1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초단파대 무선전화 357대 등 4종 3503대의 선박안전장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남=봉채영 기자

마포구, 나무심기 10개년 마스터플랜 공개 “2027년까지 500만 그루 나무 심어 공기청정숲 조성”

나무심기 예산 1580억 투입
미세먼지 줄이고 도심 온도 ↓
“숲 조성의 모범사례 되겠다”
4개 분야 나눠 프로젝트 추진

서울 마포구가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2027년까지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9일 밝혔다. 마포구는 서울 시내 전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음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3번째로 높아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미세먼지 농도일 정도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미세먼지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됐다”며 “5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심 온도를 낮춰 마포구를 주민들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친환경도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마포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는 2014~2017년에 식재한 57만 9000그루를 포함해 2022년까지 181만 그루, 2027년까지 261만1000그루 등 총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목표다. 이번 나무심기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은 1580억원이다.

구는 500만 그루 나무로 노후 경유차 1만600여대가 1년간 내뿜는 양의 미세

먼지를 줄이고 15평형 에어컨 400만대를 5시간 가동한 수준으로 도심온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구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나무 식재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구원의 '2014~2017년 수목 식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포구는 강서구에 이어 서울에

서 두 번째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자치구다. 강서구가 112만659그루로 가장 많았고 마포구 57만8540그루, 동대문구 53만5729그루, 동작구 52만 6817그루 순이었다.

마포구는 서울에서 2번째로 나무가 많은 지역이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상위권 수준이다. '2013~2017년 서울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보면 마포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높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금천구가 26.7 $\mu\text{g}/\text{m}^3$ 로 가장 높았다. 관악구(26.5 $\mu\text{g}/\text{m}^3$), 마포구(26.3 $\mu\text{g}/\text{m}^3$), 양천구(25.8 $\mu\text{g}/\text{m}^3$), 강남구(25.7 $\mu\text{g}/\text{m}^3$)가 뒤를 이었다.

구는 “도시숲이 단순히 녹지나 휴식처가 아닌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의 해법이 되도록 ‘나무를 어디에, 어떻게 심을지’ 고민하고 식재공간을 확보해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산림청에서 지정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한 수종을 선택 식재해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구는 ▲공동체 나무심기 ▲가로녹지 확충사업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민간분야 나무심기 등 4개 분야로 나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장기미집행 공원, 하천변, 철도변 등 대규모 유휴부지와 도로변 한 뼨 땅까지 구내 숨은 땅을 찾아 나무를 심는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마포구의 1인당 공원 녹지율은 기존 13.73 m^2 에서 16.26 m^2 로 늘어난다.

아울러 구는 미세먼지 민감군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과 옥상, 통학로에 벽면녹화를 실시하고 띠 녹지를 조성한다. 서울화력발전소를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개방한다.

유동균 구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미래를 심는 것”이라는 말이 더 절실해지는 시대라며 “나무 500만그루 심기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숲 조성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경기도, 명절 中 中企 자금난 해소에 300억 펀다 서울 아파트 경비실 ‘10곳 중 7곳’ 에어컨설치

은행금리보다 1% 낮게 이용
업체당 5억이내 1년 만기 상환

경기도가 올 추석명절을 앞두고 노동자 임금지급 등 자금수요 급증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수혜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8월 21일부터 총 30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추석명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 경영 안정화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 추석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맞물려, 명절 상여금 등 임금지급으로 인해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 원 이내 1년 만기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다. 단, 3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이소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이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된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추석명절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총 74건 27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총 1조 8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편성, 기업의 경영 안정 및 시설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오는 8월 26일부터는 운전자금 지원규모를 3천억 확대, 총 2조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통해 도내 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시, 골목길재생사업지 12곳 선정

3년간 사업비 10억 지원

서울시가 올해 골목길재생사업지 12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대상지에 향후 3년간 골목길 재생 마중물 사업비로 1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골목길재생 사업지는 ▲종로구 관동동 일대 ▲용산구 소월로 40·44길 ▲성동구 송정동 일대 ▲광진구 자양4동 뚝섬로30길 ▲중랑구 묵동 일대 ▲강북구 수유동 일대 ▲도봉구 창3동 일대 ▲마포구 망원1동 월드컵로19길 일대 ▲양천구 목4동 일대 ▲강서구 화곡8동 일대 ▲구로구 고척로3길~경인로15길 일대 ▲관악구 난곡로15길 일대 등이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길이 1km 내의,

폭 4m 미만의 주거 지역 골목길이나 폭 8~10m의 골목상권, 보행 중심 골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비 10억원 중 2억원은 골목길 재생 실행계획 수립과 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해 사용된다. 나머지 8억원은 골목길 주변 보행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 골목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 등에 투입된다.

성동구 송정동은 ‘우리동네 실효실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발굴·해결하고 ‘1골목 1 브랜드 골목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구로구 고척로3길~경인로15길의 경우 열악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방치된 공원을 정비한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추석 앞두고 다중이용건축물 점검

경기도가 민족 최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도내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도는 오는 9월 6일까지 도내 다중이용건축물 1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민간전문가를 비롯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총 10명의 ‘민관합동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여객터미널 5개소(부천, 용인, 여주, 이천, 안성), 백화점 4개소(성남, 구리, 수원, 의정부), 대형할인매장 6개소(안산, 의왕, 시흥, 고양, 광명, 용인)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경기=김승열 기자

석 달 만에 에어컨 설치율 10%p 상승

지난 3개월 새 서울시내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율이 10%p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올해 7월 기준으로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율이 73%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에어컨 설치 홍보 활동과 설득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석 달 만에 에어컨 설치율이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서울시내 전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설치 실태 전수조사를 벌였다.

당시 에어컨 설치율은 64%(총 8763실 중 5569실)였다.

시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서울시의무관리 대상단지인 150세대 이상 아파트 2000여 단지(1만6000여동)에 배포했다. 옥외전광판, 시민계시관, 지하철 계시관 등 시가 보유한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했다. /김현정 기자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홍보 포스터, 서울시

시는 7월 15~19일 전수조사 당시 에어컨 설치율이 50% 이하였던 268개 아파트 단지(경비실 2667실)를 방문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들 단지의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은 4월 7.9%(210실)에서 7월 38.5%(1026실)로 30.6%p 향상됐다. 경비실 수로 보면 5배 가까이(816실) 증가한 셈이다. 단지내 모든 경비실에 에어컨을 100% 설치한 곳도 절반 이상(139개, 51.9%)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교체 100억 지원

교체 보조금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사업에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체 보조금을 기존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1만2500대에서 5만대로 확대한다.

그동안 시는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를 교체할 때만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연식에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물주의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시에 있는 건물이면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주민이 보일러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요청하면 설치 확인 후 바로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한 후 보조금 16만원을 받은 주민에게는 차액 4만원을 9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산업] SK '2019 이천포럼' 개막 AI 등 첨단기술 활용 모색 06



Life

[산업] 삼성중공업 LNG 원유운반선 10척 수주 08



비씨의 사랑, 해가 떴습니다 따뜻한 나눔, 미래의 '희망' 띄우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㉔ 비씨카드

비씨카드의 사회공헌캠페인 '사랑, 해가 떴습니다'는 '우리의 따뜻한 사랑이 미래의 희망이 된다'는 가치를 바탕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비씨카드의 사회공헌 활동은 1990년대 초 카드 이용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 따뜻한 한끼 '사랑, 해 빨간밥차'

비씨카드는 2005년부터 사회의 결식 문제 해결과 국가 재난재해 발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동식 급식차량인 빨간밥차를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기증하고, 정기적으로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빨간밥차는 1시간 내에 600인분 이상의 식사 조리가 가능한 취사 장비와 냉장시설을 갖춘 5톤 특수 개조 차량으로, 전국 주요 도시(서울·인천·대구·울산·김해·광주·여수)에서 활동하며 연간 45만명의 취약계층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비씨카드의 빨간밥차는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도 활발히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태풍 '하이옌'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에서 비씨카드는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빨간밥차를 파견했다. 현지 구호 활동을 계기로 비씨카드는 현재까지 빨간밥차와 함께 정기급식, 영양 교육, 정서케어 등을 지원 중이다. 또한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랑, 해 봉사단'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빨간밥차 봉사단'이 전국의 빨간밥차 배식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인으로 구성된 '빨간밥차 봉사단'은 비씨카드가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기증한 빨간밥차의 무료 배식 현장에 함께하는 전국 규모의 봉사단이다.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봉사단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며 무의탁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결식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 중이다. 빨간밥차 봉사단은 2014년 1기 발족 이후 6개월마다 새로운 기수를 선발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10기 봉사단이 활동 중에 있다.

비씨카드는 '따뜻한 한 끼의 나눔'이 주는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야외급식이 필요한 공익행사에 빨간밥차를 보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소셜셰어링도 시행 중이다. 소셜셰어링은 야외 공익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단체, 기업, 학교, 개인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인도네시아 커피마을 만들기'

비씨카드는 지난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 농가인 '찐다야산 마을'의 경제 자립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단순원조나 일방적



인턴사원 19명으로 구성된 비씨카드 임직원 봉사단은 지난 7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재활용플라자'에서 결연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랑, 해 희망나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2011년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진행된 '사랑, 해 빨간밥차 뷰티풀데이'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단원들이 점심을 나누주고 있다.



최석진 비씨카드 상무(오른쪽)가 지난 2016년 인도네시아 찐다야산 마을에서 마을 주민과 함께 커피 묘목을 심고 있다.



비씨카드는 지난 5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푸른아시아(NGO) 등과 함께 몽골 어거노르 솜지역에 '페이퍼리스(Paperless)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비씨카드

결식문제 해결 위해 '빨간밥차' 기증 연간 45만명 취약계층에 식사 제공

인도네시아 농가 경제 자립 도와 저소득층 아동 교육·체험 지원 종이 낭비 줄이고 나무심기 사업

도움이 아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마을의 자립을 돕고 있는 것. 비씨카드는 2016년 2000그루의 커피나무를 지원한 데 이어 2017년 1만3000그루의 커피나무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지원 확대를 통해 마을의 경제적 자립을 도왔다. 이어 교육 기회가 적은 마을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건축, 놀이터 지원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마을의 자립도 완성에 한걸음 다가갔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찐다야산 마을에도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자립 모델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하고, 마을의 청소년이 바리스타로 성장하는 꿈을 꾸기도 한다. 비씨카드는

찐다야산의 자립 성공을 바탕으로 제 2~3의 자립 마을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어린이 성장 지원 '사랑, 해 희망나무'

비씨카드의 '사랑, 해 희망나무'는 저소득층 아동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결연을 맺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교육과 체험활동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2017년부터는 경력단절여성을 감사로 선발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건강증진 및 정서안정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매 시간 비씨카드 임직원 봉사단이 보조교사로 함께 참여해 아동들과 교감하고 있다.

비씨카드는 또한 결연센터 아동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 캠프나 행사를 개최해,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고 협동심을 키우는 특별한 경험도 제공 중이다. 이와 더불어 비씨카드는 아동복지시설과의 결연이 끝나게 되더라도 '홈커밍 데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영화 관람, 야구 경기 관람 등을 통해 아동들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친환경 소비...비씨카드의 '페이퍼리스'

비씨카드의 '페이퍼리스(Paperless)'는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종이 영수증을 회원의 선택에 따라 출력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줄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음으로써 절감한 비용은 환경기금으로 조성돼 친환경 소비생활 캠페인 및 생태림 조성 등의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다.

또한 비씨카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페이퍼리스 참여 기업과 함께 환경기금을 활용해 매년 나무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씨카드가 지난 5년간 황사 근원지인 중국 내몽고 자치구 쿠부치사막에 심은 나무는 23만 그루에 달하며, 활착률(생존율)은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페이퍼리스 사업을 통해 친환경 소비생활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